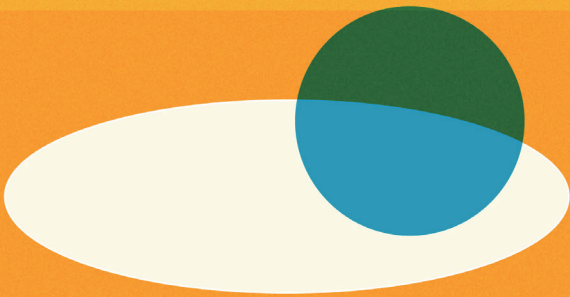


2023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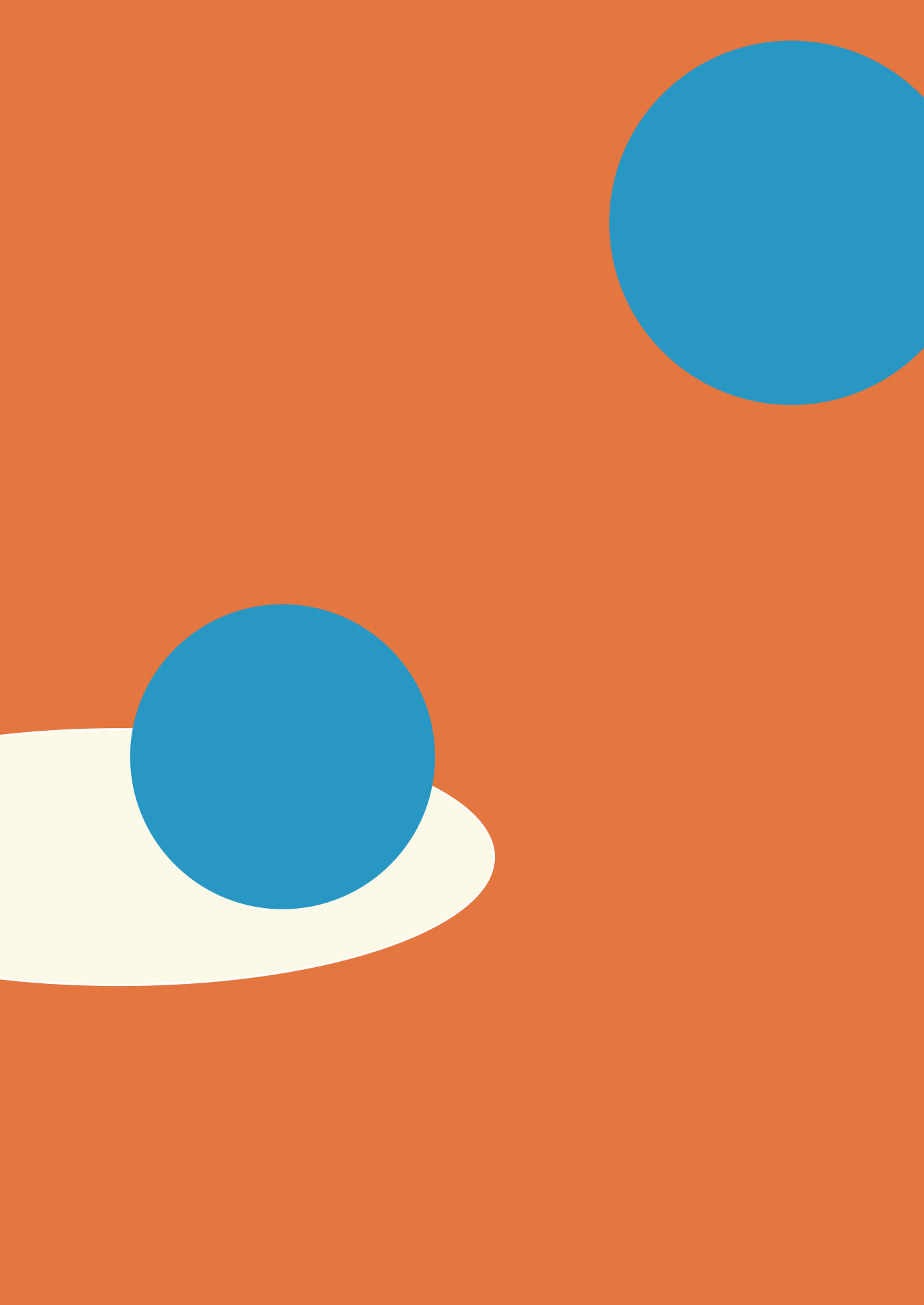
# CONTENTS

- ① 지원사업 개요 · 06
- ② 기관별 사업 소개 · 14
- ③ 역량 강화 워크숍 · 70  
〈모두를 위한 접근성: 실패의 가치는 같이〉
- ④ 결과 공유 간담회 · 122  
〈그리고 남은 질문들〉

1

# 지원사업 개요





# 2023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시행(2022.9.8)으로 문화시설 및 정보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시설의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시설, 공간, 콘텐츠, 정보 등 전반적 영역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 관객개발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기관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속해서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지원 및 거점을 확대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기간** 2023년 5월 - 2024년 1월

**지원대상**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문화시설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비, 접근성 서비스 운영비, 인건비 등

### → 콘텐츠 제작비

○ 배리어프리 작품, 전시 개발 및 제작

○ 기존 또는 창작 작품 및 전시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기획, 재제작

· 일부 회차 편성 가능

### → 접근성 서비스 운영비

○ 콘텐츠 관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운영비

· 작품해설, 홍보물, 작품 연계 프로그램, 보조인력 지원, 안내, 이동 서비스 지원 등

### → 인건비

○ 접근성 매니저 등 사업 전담 인건비 1인

(기관부담금 포함)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모	사업계획 심사	업무협의를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간담회의 진행	사업결과 공유 및 최종 정산
공모일~ 5.17 (공문/홈페이지공고)	5.18. ~ 5.26. (평가위원회)	'23.6.5.	~'23.12월	~'24.1월
사업수행계획 및 예산편성안 접수	운영기관 선정	선정결과 발표 및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결과공유 간담회,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업추진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사업 방향 설정 및 사업총괄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운영기관 선정 및 협력체계 구축
- 참여기관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기획 및 운영
- 참여기관 사업운영 공유 및 교류 간담회의 운영
- 운영기관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관리

### 공모선정

### 운영기관

-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접근성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 관객 모집 및 관리
- 공유회 및 관련 간담회의 참석
- 사업비 운영 실적 결과 및 정산 보고

## 전체 운영일정

### 2023

5월	4. 28. ~ 5. 17.	사업 공고
6월	6. 5.	참여기관 선정 11개 기관 선정
7월	7. 27. ~ 8. 20.	광명문화재단 〈아트 브릇 (Art Brut) :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
10월	10. 4.	부안군문화재단 무경계 아카데미
	10. 6.	군포문화재단 〈배리어프리, 설화와 국악심포니 만나다〉
	10. 7.	부안군문화재단 제 1회 부안 무경계 락 페스티벌 날다 〈F.L.I〉
	10. 6 ~ 10. 29.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10. 16.	역량강화 워크숍 [모두를 위한 접근성: 실패의 가치는 같이]
11월	11. 17. ~ 11. 18.	공주문화관광재단 〈보이는 소리, 만지는 소리 & 즐거운 세계 타악여행〉

12월

12. 1. 인천서구문화재단  
〈이심전심 문화공감 배리어프리 공연〉,  
2023.
12. 1. ~ 12. 6. 〈이심전심 문화공감 배리어프리 전시〉,  
2023.
12. 8. ~ 2024. 3. 10.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무장애 전시 체험 프로젝트  
〈구름 물결 꽃 바람〉
12. 9. 충북교육도서관  
〈제 4회 충북교육영화제〉 1회
12. 15.~ 12. 16. 〈배리어프리영화 특별상영회〉 3회
- 12.16.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우리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오페라 라보엠〉,
12. 20.~ 12. 21. 광명문화재단  
뮤지컬 〈장영실과 함께하는 별별GPT〉,  
2023.
12. 20. ~ 12. 31. 고성공룡박물관  
〈배리어프리, 공룡나라 고성〉,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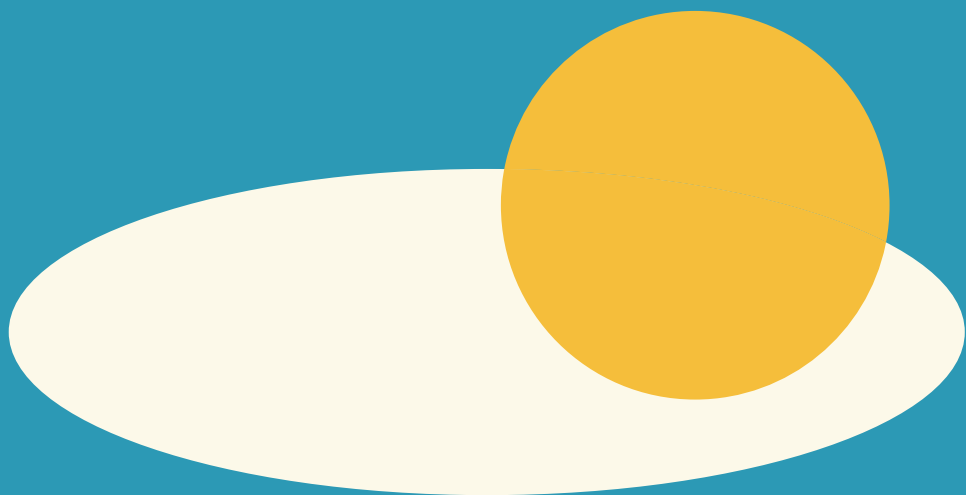
2024

1월

1. 8. 결과공유 간담회

2

# 기관별 사업 소개



# 예술경영 지원센터

## **기관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명**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0월 6일~10월 29일

## **내용**

- 동시대 공연예술을 소개, 제작 유통
- 아시아 공연예술의 창으로서 세계와의 연결고리로서 기능
- 동시대 예술적 관점(다양성/포용성/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
- 변화하는 공연예술 생태계 속 공존하고 협력하는 연대의 장으로서 기능

## **접근성 지원**

###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접근성 운영

#### — 온라인

공식홈페이지내 접근성 페이지 운영,  
장애 관객 티켓 예매 지원 및 응대

## — 오프라인

전 축제 공연장 접근성 매니저 상주 및 이동지원

## — 공통

전 연극 공연 자막 제공

### ▪ 접근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공식 홈페이지 음성포스터

— 수어 홍보 영상 및 공연장 접근성  
안내 영상

### ▪ 배리어프리 제작 공연 작품 제작

1) 극단 돌파구 <지상의 여자들>: 음성소개, 한글 자막,  
대본제공, 문자 통역(관객과의 대화)

2) 작당모의 <싸움의 기술, <졸>\_2.0>  
: 자막제공, 터치투어

3) 연극연습 프로젝트 <연극연습3. 극작연습-물고기로  
죽기>: 수어통역(출연), 자막, 음성해설(폐쇄형),  
문자통역(관객과의대화), 탈거를 통한 휠체어좌석  
확대

4) 극단 골목길 <이장>: 수어통역, 자막

5) 지연x전환 <에너지\_보이지 않는 언어>: 수어통역,  
문자통역, 터치투어, 점자소품, 수어영상



2023 SPAF 공식 포스터, 리플렛

### 2023 워크숍 페스티벌 (Workshop Festival)

날짜	시간	장소	티켓
10.6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7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8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9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0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1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2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3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4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5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6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7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8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19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0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1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2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3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4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5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6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7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8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10.29	14:00	국립극장 대극장	10,000원

### 워크숍 페스티벌의 경계는 시공과 장르와 함께하는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경계는 질문 (borderline Question)**  
 저마다 다른 문화의 충돌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질문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문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문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Workshop**  
 10.6 FRI 14:00 - 17:00 / 10.7 SUN 14:00 - 17:00 / 10.8 MON 14:00 - 17:00 / 10.9 TUE 14:00 - 17:00 / 10.10 WED 14:00 - 17:00 / 10.11 THU 14:00 - 17:00 / 10.12 FRI 14:00 - 17:00 / 10.13 SAT 14:00 - 17:00 / 10.14 SUN 14:00 - 17:00 / 10.15 MON 14:00 - 17:00 / 10.16 TUE 14:00 - 17:00 / 10.17 WED 14:00 - 17:00 / 10.18 THU 14:00 - 17:00 / 10.19 FRI 14:00 - 17:00 / 10.20 SAT 14:00 - 17:00 / 10.21 SUN 14:00 - 17:00 / 10.22 MON 14:00 - 17:00 / 10.23 TUE 14:00 - 17:00 / 10.24 WED 14:00 - 17:00 / 10.25 THU 14:00 - 17:00 / 10.26 FRI 14:00 - 17:00 / 10.27 SAT 14:00 - 17:00 / 10.28 SUN 14:00 - 17:00 / 10.29 MON 14:00 - 17:00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3**

10.6 FRI - 29 SUN

### WEEK 1 10.6 FRI - 10.8 SUN

10.6 FRI 14:00 - 17:00 / 10.7 SUN 14:00 - 17:00 / 10.8 MON 14:00 - 17:00

### WEEK 2 10.10 TUE - 10.15 SUN

10.10 TUE 14:00 - 17:00 / 10.11 WED 14:00 - 17:00 / 10.12 THU 14:00 - 17:00 / 10.13 FRI 14:00 - 17:00 / 10.14 SAT 14:00 - 17:00 / 10.15 SUN 14:00 - 17:00

### WEEK 3 10.17 TUE - 10.22 SUN

10.17 TUE 14:00 - 17:00 / 10.18 WED 14:00 - 17:00 / 10.19 THU 14:00 - 17:00 / 10.20 FRI 14:00 - 17:00 / 10.21 SAT 14:00 - 17:00 / 10.22 SUN 14:00 - 17:00

### WEEK 4 10.24 TUE - 10.29 SUN

10.24 TUE 14:00 - 17:00 / 10.25 WED 14:00 - 17:00 / 10.26 THU 14:00 - 17:00 / 10.27 FRI 14:00 - 17:00 / 10.28 SAT 14:00 - 17:00 / 10.29 SUN 14:00 - 17:00

19



지연X전환 <에너지\_보이지 않는 언어>\_자막 해설, 터치 투어, 점자 스티커



SPAF 공식 홍보 영상 수어 통역

작당모의\_싸움의 기술



# 경기도 박물관



## **기관명**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 **사업명**

무장애 전시 체험 프로젝트 『구름 물결 꽃 바람』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2월 8일  
~2024년 3월 10일

## **내용**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한 전통 무늬 체험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유의 영역을 넓히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 **접근성 지원**

촉각 전시, 수어 안내, 점자 안내서, 이동 슬로프, 전동 휠체어 충전 등

경기도박물관 Gyeonggi Province Museum 기획전시실  
무장애 특별전 Barrier-free Special Exhibition 2023.12.8.-2024.3.10.

# 구름 물결 꽃 바람

# Clouds, Waves, Flowers and the Wishes



경기도박물관 무장애 특별전 포스터



경기도박물관 무장애 특별전



# 군포문화재단

## **기관명**

(재)군포문화재단

## **사업명**

배리어프리, 설화와 국악심포니 만나다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0월 6일(목), 1일 1회

## **내용**

- 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설화, 샌드애니메이션을 융합한 배리어프리 공연
-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협업을 통한 전시
- 정은혜 작가 전시 및 사인회

## **접근성 지원**

터치투어, 화면자막, 수어통역,  
릴렉스드 퍼포먼스, 점자 안내서, 휠체어석, 보호자 동반  
객석, 안내원 배치



국립 서울대학교



서울국악관현악단



# 국악심포니

## 실화와

### 만나다.

배리어프리 공연

**13시**  
리콜전시 자유관람

**14시**  
국악기 터치 투어  
장애안식개신 캠페인

**14시 30분**  
길놀이 동락연희단

**15시**  
배리어프리 공연  
<실화와 국악심포니 만나다>

**16시**  
정은혜 작가 시인회

샌드아트 박진아  
스튜디오벨라 민은선  
풍극 (사)식동어머니회  
수어배우 김민애, 윤남, 최영훈

플랫폼 김혜성  
지휘 채길봉  
작곡 이창현  
소리 서진실  
장가 장영서  
연주 서울국악관현악단

전시 및 장애인 인식 개신 캠페인  
정은혜 작가  
근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연주 서울-국악관현악단



시인 정은혜



작가 정은혜



예매QR코드

**2023. 10. 6. (금)**  
**13시 - 17시 전석 무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울

문 의

군포문화예술회관 031-390-3500-1

주최 · 주관

군포문화재단

협력

서울국악관현악단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본 작품은 2023년 무장애 문화유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배리어프리 공연 실화와 국악심포니 만나다\_포스터, 리플렛

"배리어프리 공연"  
실화와 국악심포니 만나다!

누구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서울국악관현악단에서 공연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접근성,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소개합니다.

배리어프리 공연 소개

배리어프리 공연 소개

배리어프리 공연 소개

배리어프리 공연 소개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배리어프리 공연 설화와 국악심포니 만나다



# 광명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Gwangmyeong Cultural Foundation

## 기관명

(재)광명문화재단

## 사업명

— 전시 〈아트 브룻(Art Brut) :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

— 공연 〈뮤지컬 장영실과 함께하는 별별 GPT〉

## 사업운영기간

— 전시 2023년 7월 27일(목)

~8월 20일(일) /21일간

— 공연 2023년 12월 20일(수) 19:30, 21일(목)

14:00, 19:30 /2일 3회

## 내용

### 1) 전시

— 용인 '벗이미술관'의 아르브뤼(Art Brut)\* 소장품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 소개

### 2) 공연 소개글

—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불편함 없는 공연을 목표로 낯설지 않은  
환경에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창작 뮤지컬

## 접근성 지원

### 1) 전시 접근성 운영

- 촉각 작품 체험존 (촉각으로 감상하는 양각그림(압화), 점자)
- 낮은 전시캡션 배치
- 각 섹션별 수어 전시해설 영상
- 오디오 도슨트 제공
- 맞춤형 전시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 사전 홍보 수어 영상 제작 및 SNS 활용
- 큰 글씨 홍보물 제작
- 전시 안내원 상주 및 도슨트 운영

### 2) 공연 접근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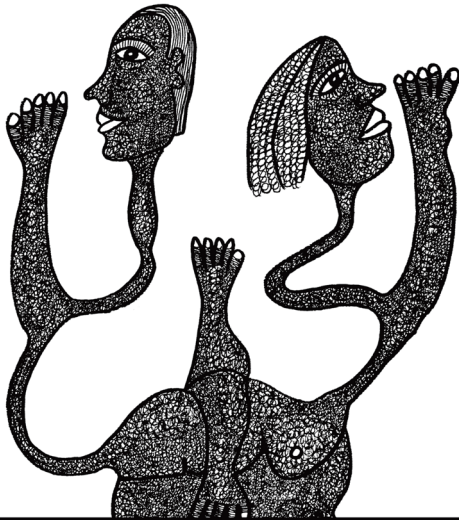
- 접근성 매니저
- 릴랙스드 퍼포먼스
- 수어통역 및 폐쇄형 실시간 한글자막
- 오디오 도슨트 제공
- 안내보행 및 이동지원, 수어통역사 로비 대기, 필담노트, 휠체어존
- 수어 이름 배우기 등 체험을 통한 심리적인 접근성 향상
- 쉬운 글 안내서 전단 제작 및 배포
- 사전 홍보 수어 영상 제작 및 SNS 활용
- 평일 공연 진행

2023.7.27.(목)  
2023.8.20.(일)

2023년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벚미술관 소장품전  
광명문화재단

# Art Brut

아트 브루트 —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



광명시민회관 전시실 | 화요일~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관) | 관람료: 무료 |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 문의: 광명문화재단 02-2621-8814  
주최: 광명문화재단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도문화재단

## 아트 브루트(Art Brut) -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

‘아트 브루트(Art Brut)’이란 프랑스어로 ‘가공하지 않은, 원시적인 순수한 예술’이란 뜻으로, 1945년 프랑스의 예술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가 정의한 개념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아트 브루트는 해외에서는 예술의 중심에서 인정받고 있고, 아트 브루트에서 파생된 아웃사이드 아트는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며 문화 예술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조성에서 비롯되어 특정한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아트 브루트와 아웃사이드 아트는 작품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성별,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작품의 깊이와 폭을 보여줍니다.

‘아트 브루트: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 전시는 벚미술관의 수준 높은 소장품을 통해 아트 브루트와 아웃사이드 아트의 유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아트 브루트와 아웃사이드 아트를 오히려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하며 예술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정형화된 방식으로 구분하고 분리하는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며, 예술가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메시지를 통해 힐링을 전하고자 합니다.

### 벚미술관

벚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아트 브루트(Art Brut)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r Art) 전문 미술관으로 2015년 개관하였습니다. 벚(VERS)는 한글로는 ‘벚’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우리의 곁에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벚이 되고자 하는 한편, 영문으로는 ‘VERS’라는 의미로서 ‘Diversity(다양성)’라는 키워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배리어프리 전시

- 배리어프리 전시
- 본 전시는 촉각 체험 작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전시는 수어 전시해설 영상과 오디오 도슨트가 제공됩니다.

광명문화재단의 <아트 브루트(Art Brut) -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23년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전시는, 장애·비장애 관람객 모두 불편함 없이 전시를 감상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은 202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광명문화재단

오시는길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회관(철산동) 지하 1층  
\*실외로만 이동 가능하여 리프트를 꼭 주의로 나와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  
14243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회관(철산동)  
T: 02-2621-8845 F: 02-2060-8800  
instagram.com/gmcf.official  
instagram.com/gm\_civic\_center  
Facebook.com/withGMCFC

### 참여작가 리스트

- 카보레 에르빌(Cabore Erard)
- 레오폴드 스트로프(Leopold Stross)
- 아우구스트 윌리(August Willib)
- 유르겐 트루베(Jurgen Trube)
- 제러드 샌더(Gerard Saender)
- 조지안 헤르만(Georgina Herman)
- 프란츠 캄판더(Franz Kamlander)
- 프란츠 코르베르(Franz Korber)
- 알도 노그(Aldo Nogue)
- 폴란드 로디(Poland Lodie)
- 폴란드 로디(Poland Lodie)
- 루이 비르넷(Louis Villaret)
- 마크 앤서니 마콘(Mark Anthony Maccon)
- 앤드류 맥앤더(Andrew Mc)
- 존 바비(John Barbic)
- 조지안 헤르만(Georgina Herman)
- 엘리아스(Elia)
- 한단주(Han Danju)

<아트 브루트(Art Brut):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  
포스터, 리플렛





2023년 무장애 문화행위 확산화 지원사업

# Art Brut

## 아트 브루트 —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

아트 브루트 (Art Brut) & 아웃사이드 아트 (Outsider Art)

아트 브루트 (Art Brut)이란 프랑스어로 '가공하지 않은, 원시적인'이란 예술이란 뜻으로, 1945년 프랑스의 예술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가 창시한 개념입니다. 뒤뷔페가 창시한 아트 브루트는 예술의 중심에서 단절되고 고립된 아트 브루트인 예술가들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아트 브루트에서 파생된 아웃사이드 아트는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아트 브루트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조성에서 비롯된 예술에서 아웃사이드 아트는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아트 브루트와 아웃사이드 아트는 작품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신발, 인공, 공로, 문화에 대한 극복하는 작품의 깊이와 폭을 보여줍니다.

전시는 벗이미술관의 수준 높은 소장품을 통해 아트 브루트와 아웃사이드 아트의 유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아트 브루트와 아웃사이드 아트를 모두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하며 예술적으로 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정형화된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는 아트 브루트와 아웃사이드 아트를 넘어서, 예술가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메시지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 해당 작품의 전시  
본 전시는 특히 저지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본 전시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 기간 동안 장애인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본 전시는 특히 저지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본 전시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 기간 동안 장애인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광명문화재단  
협력: 벗이미술관  
출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포럼, 광명시



〈아트 브루트(Art Brut) :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



# 인천서구 문화재단



## **기관명**

(재)인천서구문화재단

## **사업명**

이심전심 장벽 없는 문화향유사업

### — 공연

이심전심 문화공감 배리어프리 공연

### — 전시

이심전심 문화공감 배리어프리 전시

## **사업운영기간**

### — 공연

2023년 12월 1일(금) 19:30, 1회

### — 전시

2023년 12월 1일(금)~12월 6일

(수) 10:00-18:00

## **내용**

대중음악, 연주, 영상, 수어가 결합된 복합콘서트 및 시각·촉각 작품을 통한 무장애 전시 개최

## **접근성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전교육,

휠체어석 및 보호자 동반 객석 운영, 작품해설(전시 작가

소개 및 작품에 대한 오디오 도슨트 녹음, 공연 수어통역사

운영), 자막 지원, 릴렉스드 퍼포먼스, 촉각 전시,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연장 내·외부 장애인시설 위치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어텐던트 현장배치, 쉬운 글 안내서, 점자 안내서, 큰 글자 안내서

이심전심 문화공감

모두가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공연

12.01.금 19:30

정라블루노바홀

전석무료 | 온라인사전에매

www.artscenter.com

모두가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공연

본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회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공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청각장애인의 수어 통역 등 누구나 쉽게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www.artscenter.com

공연 하이라이트

선악가

대중가수 공연

김지호 | 보컬

박우연 | 싱어송라이터

김민연 | 가수

황수연 | 시니어가수

도희선 | 소프라노

당지연 | 바이올린

김정호 | 미디엄

지우 | 테너 (캐슬) | 가수

김지호 | 보컬

박우연 | 싱어송라이터

김민연 | 가수

황수연 | 시니어가수

프로그램

소프라노 | 도희선

- Je te veux! (당신을 사랑해요)

- 공중에서 날아 왔어요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밤새 춤을 출수 있었어요)

장애 예술인 4인4색 공연

1. 박우연 | 김지호

- Open Throat

- Medication (약물)

- 고요한 밤, 거대한 별

2. 보컬 | 김지호

- Je me souviens (나는 기억해)

3. 싱어송라이터 | 박우연

- How you smell a merry little Christmas

- 사랑

4. 미디엄 | 김정호

- Zigmundsson

- 김민연 노래

- Flight of the bumblebee (황제의 비행)

5. 4인4색 합주

- You take me up! (당신은 무지개)

The best and most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cannot be seen or even touched. They must be felt within the heart. (Uden Koller)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심전심 문화공감

모두가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공연

12.01.금 19:30

정라블루노바홀

전석무료 | 온라인사전에매

www.artscenter.com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감각체험형 배리어프리 전시

12.01.금 - 12.06.수

10:00-18:00

정라블루노바홀 전시실

이디희 | 백인교 | 최 잔

주최·주관 | 인천서구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의 | 032-510-6054

이심전심 문화공감 배리어프리 포스터, 리플렛



이심전심 문화공감  
배리어프리 공연 사진



이심전심 문화공감 배리어프리 전시장 전경



# 공주 문화관광재단



### **기관명**

(재)공주문화관광재단

### **사업명**

보이는 소리, 만지는 소리 & 즐거운 세계 타악여행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1월 17일(금) ~ 11월 18일(토)

### **내용**

장애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이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과 터치투어 프로그램인 세계 타악기 체험행사를 진행

### **접근성 지원**

자막지원, 큰 글자 안내서, 수어통역, 터치투어, 점자 안내서, 릴랙스드 퍼포먼스

# 배리어 프리 특별공연 보이는 소리, 만지는 소리 즐거운 세계 타악여행

## 공연 프로그램

### 하트시각장애인 채임버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이상재**, 소프라노 **조자영**  
테너 **석인오**, 마림바 **전경호**

11.17.(금) 10:30 / 18.(토) 14:00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 티켓금액 전석 무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공연예매 공주문예회관 누리집

(www.gongjuacc.or.kr)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

(https://tickets.interpark.com/)

공연문의 공주문예회관 041) 852-0858

## 체험 프로그램

### 세계 타악기 체험행사 진행

11.17.(금) 9:30-12:00 / 18.(토) 13:00-17:00

공주문예회관 주차장(우천시 실내)



공주문예회관공연재단  
회원가입 QR코드  
(이름 주무님님 문자번호)

주최/주관 공주문예회관공연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배리어 프리 특별공연 보이는 소리, 만지는 소리 즐거운 세계 타악여행

## 공연 프로그램

### 하트시각장애인 채임버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이상재**, 소프라노 **조자영**  
테너 **석인오**, 마림바 **전경호**

11.17.(금) 10:30 / 18.(토) 14:00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 티켓금액 전석 무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공연예매 공주문예회관 누리집

(www.gongjuacc.or.kr)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

(https://tickets.interpark.com/)

공연문의 공주문예회관 041) 852-0858

## 체험 프로그램

### 세계 타악기 체험행사 진행

11.17.(금) 9:30-12:00 / 18.(토) 13:00-17:00

공주문예회관 주차장(우천시 실내)



공주문예회관공연재단  
회원가입 QR코드  
(이름 주무님 문자번호)

주최/주관 공주문예회관공연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모든 것이 기억에 의존해서 연주하는 가극의 오케스트라! 공주가 자랑하는 소프라노 조자영과 테너 석인오의 만남!

극장에서 가극의 오케스트라로 국악을 맡는 하트시각장애인채임버오케스트라의 마음으로 교향하는 한국의 하트시각 예술 가치를 오케스트라로 응원하는 조자영, 석인오, 테너 석인오가 녹음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과 정서적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으로 공연의 시도를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타악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공연 관람 전후를 즐겁게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많은 관객이 될 것입니다.

## 배리어프리 공연Barrier Free!

배리어 프리는 Barrier(장애)와 Free(이 없이 자유로움)가 합쳐진 용어로 장애가 없는 시민의 사회참여를 하는 데 물리적·정보적·경제적·제도적 차이를 없애고, 장애인에게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에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물리적·제약이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연 관람 전후를 즐겁게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많은 관객이 될 것입니다.

## 공연 프로그램 보이는 소리, 만지는 소리



현트 앙상블 오케스트라



세계 타악기 체험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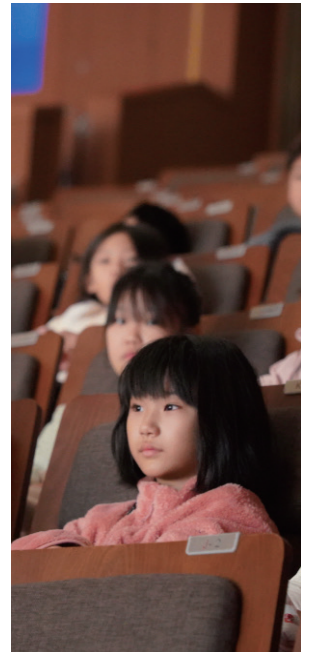
배리어 프리 공연과 함께 테너 석인오가 주관하는 세계 타악기 체험행사를 운영합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다양한 세계의 타악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배리어프리 접근성 안내

- 자막 지원: 이력별 설명 스크린에서 공연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제공합니다.
- 소리 지원: 공연과 체험 부스에서 소리가 통역사가 공연과 체험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점자 지원: 시각 장애인에게 안내를 위해 점자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 점자 지원: 공연과 체험 부스에서 점자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 큰 글자 리플렛: 읽기 어려운 내용이 쉬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 터치 투어: 세계 타악기 체험행사가 진행됩니다.
- 일일소 회담 서비스: 공연 관람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공연 중 프로그램 변경, 출입에 제동을 두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은 주무님 문자 상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소리, 만지는 소리 & 즐거운 세계 타악여행> 포스터, 리플렛



〈보이는 소리, 만지는 소리  
& 즐거운 세계 타악여행〉  
공연 현장 사진



#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 **기관명**

충청북도교육도서관

## **사업명**

충북교육영화제 화면해설영화제작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1월 1일(수) ~ 12월 20일(수)

## **내용**

- 2023년 9월 2일 ~ 9월 3일 북페스티벌  
화면해설영화상영 6회
- 2023년 11월 2일 점자의날 화면해설영화상영 1회
- 2023년 11월 15일~12월 5일 배리어프리 영화제작  
7편
- 2023년 12월 9일 충북교육영화제 1회
- 2023년 12월 15일 ~12월 16일 배리어프리영화  
특별상영회 3회

## **접근성 지원**

자막해설, 음성해설, 수어통역, 점자 안내서, 큰 글자 안내서,  
휠체어석, 이동 슬로프, 안내원 배치 등

배리어프리  
특별상영회 홍보영상



제4회 충북교육영화제

# 배리어프리영화 특별상영회

기간 2023.12.15.(금)-12.16.(토) 총 3회  
장소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배리어프리영화관**

- 기본 영상에 음성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워터 및 대사, 음악, 소리 효과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상

**충북교육영화관**

- 도내 17개 시·군·구·자치구에 생애안 교육연장 미디어를 직접 영토로 표인
- 12월 9일 제4회 충북교육영화제 • 유류분 재산 증여 미디어교육방송으로 상영 예정
- 충북교육연 구정보원 주최

**배리어프리영화 특별상영회 일정**

- 12.15 (금) 10:00-12:00 / 14:00-16:00
- 12.16 (토) 14:00-16:00

**배리어프리영화 총 7편 제작**

- 개막작: 연애, 충북, 내전, 청년
- 신정자: 4번, 이상천주, 원남주, 신남규, 정영규

주관: 충청북도교육도서관 | 후원: 충청북도관광청 | 후원: 충청남도교육정보원 | 협조: 충청북도교육정보원

2023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북교육영화제  
배리어프리영화특별상영회  
INVITATION

장벽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향유의 장

배리어프리영화가 주는 따뜻한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 이종수

회차	일시	대상	상영작	장소
1	2023.12.15.(금) 10:00-12:00	주성초 5-6학년 가현옥 카리스타프수 감독	시간나무   절대지켜 D-무   19번째 크리스마스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 다목적홀
2	2023.12.15.(금) 14:00-16:00	교직원, 내빈 감독과의 만남	시간나무   절대지켜 D-무   19번째 크리스마스	
3	2023.12.16.(토) 14:00-16:00	시청각장애인, 일반	시간나무   절대지켜   해몽 D-무   19번째 크리스마스	

사전신청안내: 다름자료실 043)268-6979

2023 무장애문화향유활성화지원사업

충북교육영화제

## 배리어프리영화 특별상영회

충청북도교육도서관 | 충청북도관광청 | 충청남도교육정보원

충북교육영화제  
배리어프리영화  
특별상영회

BARRIER  
FREE  
무장애 문화향유

일시 2023.12.15.(금) 14:00-16:00  
2023.12.16.(토) 14:00-16:00

장소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다목적홀

배리어프리  
포스터, 초대장, 리플렛

2023년 겨울  
제4회 충북교육영화제 배리어프리영화  
점자 안내 책자

교정: 아홉

충청북도교육도서관 | 충청북도관광청 | 충청남도교육정보원

교육도서관 점자 안내 책자



배리어프리 영화  
특별 상영회

# 충주시 문화회관



충 주 시

## **기관명**

충주시문화회관

## **사업명**

Now, We are Free!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2월 15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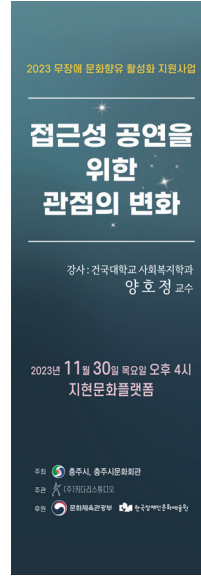
10:30 / 19:00(2회공연)

## **내용**

충주를 상징하는 우륵 이야기에 전통 및 현대음악, 정가, 한국무용, 택견, 태권도, 북청사자놀이, 밸리댄스 등을 결합해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제작함은 물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

## **접근성 지원**

- 내부인력 및 관계자 대상  
[접근성 공연을 위한 관점의 변화] 특강 실시
- 자막해설 및 음성해설 지원
- 접근성 높은 홍보영상, 점자 및 큰 글씨 프로그램북
- 전통악기 터치투어
- 안내요원 배치, 교통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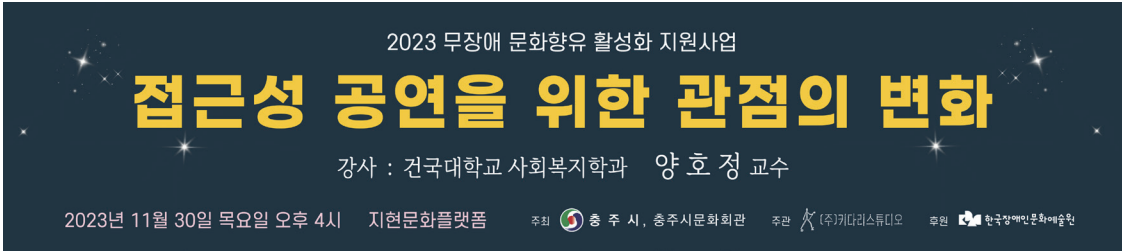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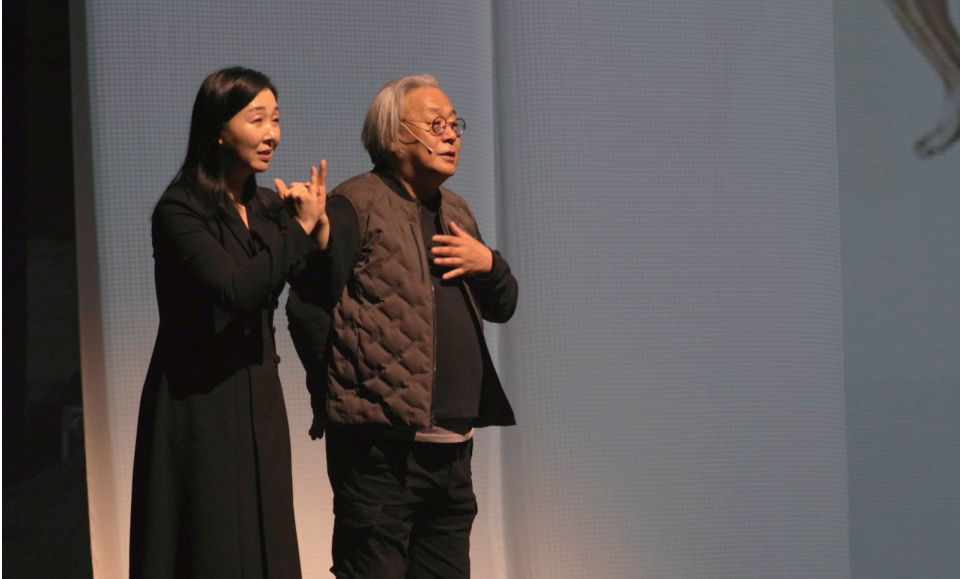
Now We are Free!  
포스터, 배너, 프로그램북 & 네임카드, 포토월



Now We are Free!  
홍보영상

Now We are Free!  
현수막





Now, We are Free! 공연



Now, We are Free! 전통악기 터치투어, 프로그램북

# 부안군문화재단



## **기관명**

(재)부안군문화재단

## **사업명**

제 1회 부안 무경계 락 페스티벌 날다(F.L.I)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0월 4일(무경계 아카데미),  
2023년 10월 7일(무경계 락 페스티벌)

## **내용**

- 무경계 락 페스티벌 (Feeling)
  -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음악으로 하나 되는 배리어프리 음악 공연(액티브 수어)
- 무경계 체험 부스(Living)
  - 저시력장애 안경 및 우퍼조끼 체험 등 체감형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무경계 아카데미(Incubating)
  - 미래의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접근성 지원

- 실시간 자막 지원
- 수어통역 부스 지원
- 무대 위 수어통역사 2인 지원(액티브 수어)
- 점자 안내서, 큰 글자 안내서 배포
- 휠체어석(배리어프리존, 동반자 포함) 설치
- 무대 안내요원 및 배리어프리 안내요원 배치
- 배리어프리 입구 및 출구 구비
- 행사장 내 휠체어 충전 장소 구비
- 행사장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 우퍼조끼 운영



제 1회 부안 무경계 락 페스티벌 날다  
포스터 & 리플렛



락페스티벌





락페스티벌



락페스티벌

# 고성 공룡박물관



## **기관명**

고성공룡박물관

## **사업명**

배리어프리, 공룡나라 고성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2월 20일 ~ 12월 31일

## **내용**

- <고성, 공룡에 닿다> 특별전
  - 촉각체험 중심 특별전
  - 전시장 내 점자블록 설치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박물관의 공룡화석을 촉각 및 음성을 통해 체험
- 촉각 공룡
  - 공룡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
  - 점자 안내 제공
- 화석 발굴 프로그램 및 화석 체험 프로그램
  - 소형 화석 발굴 체험
  - 발자국 화석과 암모나이트 등 25종의 화석 촉각 체험

## 접근성 지원

촉각 전시, 점자 안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점자 및 보이스아이 안내서 제공, 안내원 배치, 휠체어 제공

## 웹포스터 & 리플렛



고성공룡박물관 무장애 특별전



# 고성, \_\_\_\_\_ 공룡에 닿다.



주최/주관  고성공룡박물관 GOSEONG DINOSAUR MUSEU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어린 시절,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하던 공룡과 화석을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손 끝으로 공룡이 살았던 시대를 상상하고, 그 시대와 지금의 다른 점들을 그려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관람이 끝난 후, 상상으로 만들어진 공룡과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들을 비교해보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전시를 즐겨주세요.



고성공룡박물관 무장애 특별전



# 고성, \_\_\_\_\_ 공룡에 닿다.



주최/주관  고성공룡박물관 GOSEONG DINOSAUR MUSEU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 **기관명**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사업명**

우리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오페라 '라 보엠'

## **사업운영기간**

2023년 12월 16일(토)

14:00 / 19:00,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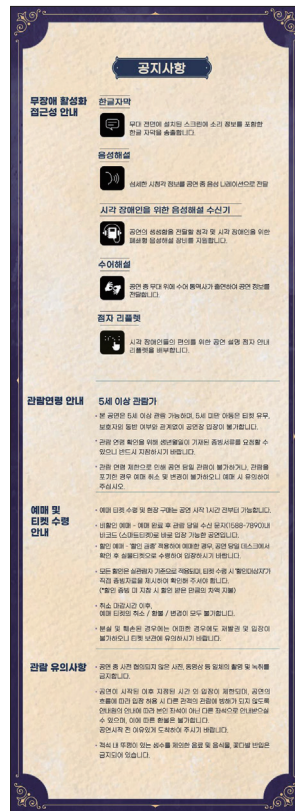
## **내용**

- 공연 사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배리어프리 공연 전문 제작 강의, 하우스어서 대상 장애인 안내교육 등 내부 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푸치니의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로 알려진 오페라 '라 보엠' 을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제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오페라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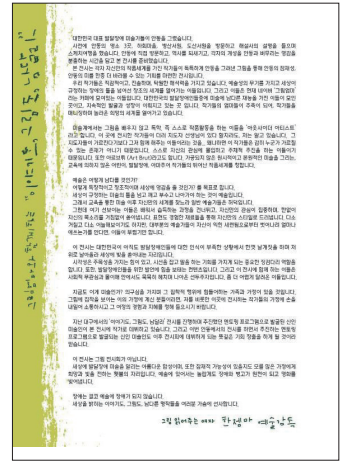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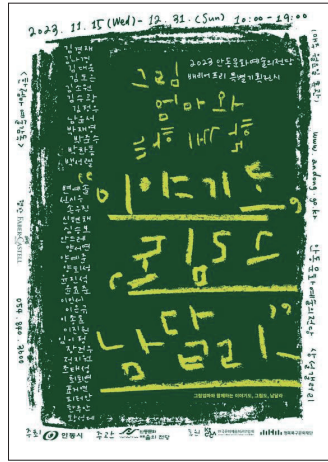
## 접근성 지원

- 의상 및 소품 터치투어
- 접근성 매니저 운영
- 로비 및 객석안내의 수어 통역사 배치
- 자막해설, 음성해설, 수어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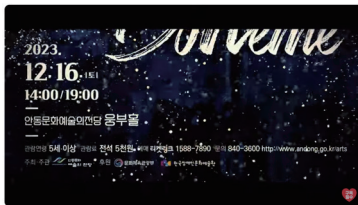
## 배리어프리 오페라 라보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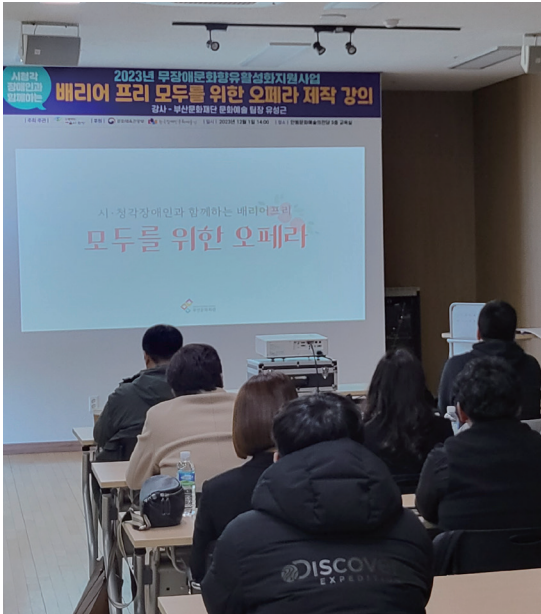


# 포스터\_그림엄마와 함께하는 이야기도, 그림도, 남달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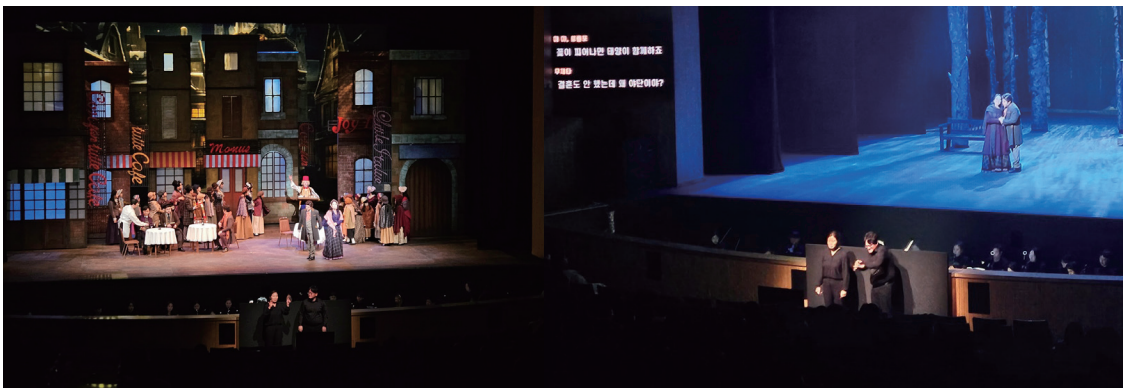


## 홍보영상





그림엄마와 함께하는 이야기도 그림도 남달라  
라보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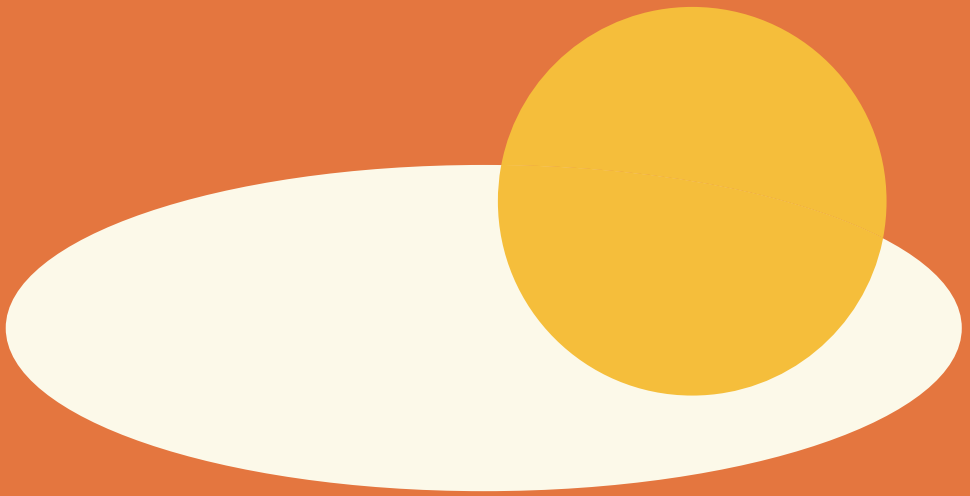


라보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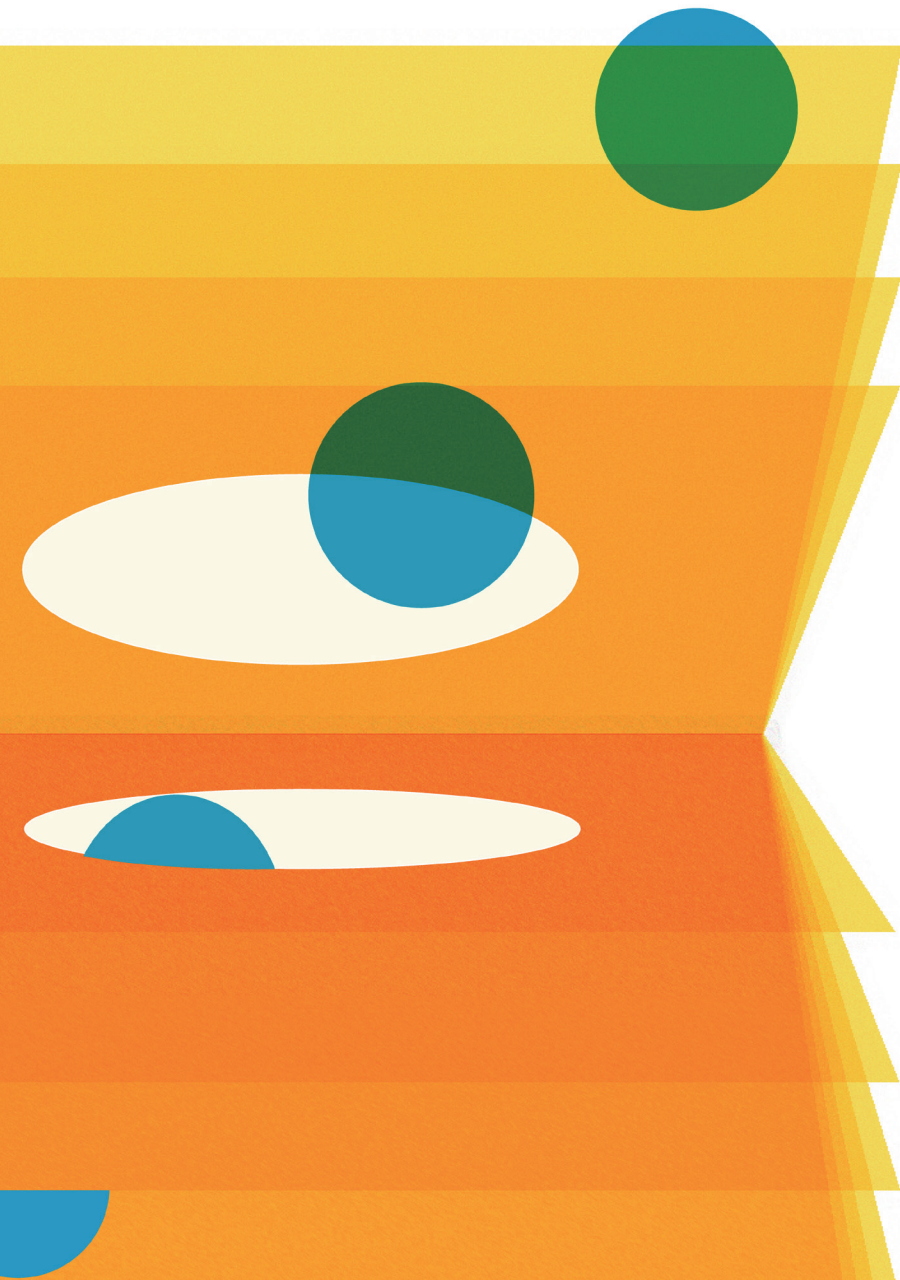
# 3

## 역량 강화 워크숍

〈모두를 위한 접근성  
: 실패의 가치는 같이〉



# 모두를 위한 접근성: 실패의 가치는 같이



### 〈모두를 위한 접근성: 실패의 가치는 같이〉는

문화예술 기관의 접근성 경험을 실패나 어려움으로 규정하지 않고자 하는 워크숍이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대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 워크숍은 4명의 현장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무장애의 의미와 가치가 문화 예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

1. '접근성을 위해 무엇이 있으면 되나요?'의 체크리스트에서 벗어나기
2. '무장애'를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견제하기
3. 장애 감수성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고민하기

접근성은 특정 누군가를 위하는 것 혹은 특정 누군가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하는 것이며,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본 워크숍은 이러한 질문들을 토대로 기획되었으며, 접근성 매니저, 수어통역사, 장애예술인, 학예사 등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자 했다.

# 모더레이터 이유진

## 아르코 예술극장 접근성 공연 제작 PD

### 2023 접근성 공연 제작 총 3편

### 2022 접근성 공연 제작

#### ▪ 연극

〈발이 되기〉, 극단적인승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뒷마루가 있는 집〉, 창작공동체 아르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잔인하게 부드럽게〉, 극단 꼬끼리만보,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사월의 사원〉, 극단 전화벨이울린다,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 ▪ 무용

〈구조의 구조〉, 시나브로가슴에,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침묵〉, 99아트컴퍼니,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2021 접근성 공연 제작

#### ▪ 연극

〈발이 되기〉, 극단적인승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뒷마루가 있는 집〉, 창작공동체 아르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잔인하게 부드럽게〉, 극단 꼬끼리만보,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사월의 사원〉, 극단 전화벨이울린다,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 ▪ 무용

〈구조의 구조〉, 시나브로가슴에,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2023. 10

- 2023 SPAF: 연극 <지상의 여자들>, 국립정동극장\_세실, 극단 돌파구  
영문자막, 국문자막해설, 디자인 및 운용
- 연극 <당신에게 닿는 길>, 홍익대아트센터 소극장, (재) 국립극단  
자막해설 디자인, 스마트글라스 운용

### 2023. 09

- 연극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자막해설 디자인
- 연극 <스코파라갈>, 홍익대아트센터 소극장, (재) 국립극단  
자막해설 디자인

### 2023. 07

- 연극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국립정동극장\_세실, 페미씨어터&프레이포 라이프  
자막해설 디자인
- 연극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재) 두산연강재단  
접근성 매니저, 음성해설 대본 및 낭독, 자막해설 디자인

### 2023. 06

- 2023.06 연극 <20세기 블루스>,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재)두산연강재단  
접근성 매니저, 자막해설 디자인
- 연극 <보존과학자>, 백성희장민호극장, (재)국립극단  
자막해설 디자인

# 김홍남

## 수어통역사

- 의사소통·BF지원: 방송, 강의, 문화예술콘텐츠, 여행, 각종행사
- 교육분야: 수어교육, 인권교육, 배리어프리(BF) 교육
- 공연문화예술 배리어프리 통역 및 연출
- 한국수화언어 강사, 접근성교육 강의
- 수어통역사 보수교육, 교사연수 수어지도, 인권강의
-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강의 및 수어 지도
-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등 배우 수어 지도, 행사
- 대선 및 총선관련 선거유세통역
- 평창동계패럴림픽 및 각종 경기, 대회 통역
- 지역축제, 문화제, 콘서트 등 각종 행사관련 통역
-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등 공연예술 통역
- 국내, 해외여행 통역 TC
- 무장애 환경 모니터

### 2023

- 202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기술기반 장애예술 창작실험실> 선정, <들리는 춤> 진행
-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동시접속>
- 댄스필름 <함께 구르는 기술> 출연
- 202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어둠 속에, 풍경> 참여
-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스페이스 랩: 아직> 선정, <무성한 성무> 진행

### 2022

- 2022 국립극단 창작공감:연출 <커뮤니티 대소동> 출연
- 서울문화재단 <일상문화 블랭크> 선정, 소리창작워크숍 <상상경작> 진행
- 안테나 <영소셜링크> 선정, <남산 탈출기> 진행
- 서울문화재단 <가지가지 활동> 선정, 움직임워크숍 <봉인해제> 진행

# 정재은

## 환기미술관 학예사

### 2023

- 해외 한국문화교육 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환기미술관 & 뉴욕 현대미술관(MoMA) 공동협력 프로그램, Knock Project (Overseas Korean Cultural Exchange Project) 기획 및 현지진행
- 롯데 홈쇼핑, 우리은행 등 기업체 출강

### 2016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현대미술작가 시리즈」 〈김형대〉展 자료 리서처
- DDP 오픈큐레이팅 공모 선정 전시 〈보이는 집: 여섯 개의 방〉 기획 및 진행
- 예술경영지원센터 [NEXT STEP] 국제문화교류 연구활동 지원사업 〈동아시아 문화예술 연구〉

### 2010

- 환기미술관 학예연구원 전시 및 관내외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2023)



# 접근성 용어의 정립

## 접근성 강화 장치의 활용

### 감각의 전환과 확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이 사업은 올해 2년차가 된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은 국공립 문화 예술 기관 및 문화시설이다. 본 사업을 통해 지속해서 접근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유진** | 나는 대학로 예술 극장에서 접근성 공연 제작 프로듀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실무자들이 있는 걸로 안다. 이 사업이 2년차라고 들었다. 이미 사업을 진행 완료한 분도 있을 것이다. 자료를 보니까 공연, 전시, 페스티벌 등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내용을 듣고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2021년부터 접근성 공연 제작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마침 SPAF도 참여하고 있어서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자면, 2020년 SPAF 자막 패널을 어디에 달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 경험이 접근성 공연 제작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다. 많은 실패담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청** | 나는 접근성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으며, 두산아트센터와 국립극단에서 자막해설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는 나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함께 공유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사소한 것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다. 접근성 매니저라는 역할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아서, 창작진, 제작진과 함께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실패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관객과 함께 실패하는 경험도 하고 있다. 이 작업이 어떻게 가닿았는지, 어떻게 발전해나가면 좋을지 끊임없이 나누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 나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했다. 첫 번째, 접근성 용어의 정립, 접근성 강화 장치의 활용, 감각의 전환과 확장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다. 작업을 하면서 용어를 정립하는 과정을 가진다. 매번 프로덕션과 함께 용어를 정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건 프로덕션뿐 아니라 실무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공유하고 정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 접근성 매니저란?

내가 접근성 매니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관객, 제작진, 창작진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창작진들과는 이 작품을 어떻게 접근하게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극장의 실무진, 그리고 장애인 관객들과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관객의 장애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령이나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접근성 자체는 장애인 관객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접근성 매니저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작 초기에 창작진과 함께 나누는 말이 있다. 창작을 시작하기 전 함께 모여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한다. 어떤 목적을 함께 갈 것인지, 왜 하는지 등 논의를 거치면 시각이 달라진다. 접근성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향유에 목적을 뒀야 한다. 접근성은 장애인 관객들도 언제나 이 전시, 공연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당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 용어의 정립 : 배리어프리에서 접근성으로

‘무장애’라는 용어도 장애인 관객과 용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접근성이란 단어

를 사용한다. 우선 무장애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장애인 관객에게 '장애가 있는데 왜 장애를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피드백을 들었다. '우리는 장애가 있고 이 장애를 존재자체로 인식하고 어떻게 같이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는데, '무장애'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감각을 느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건축용어에서 시작되었다. 배리어프리는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인데 단어 자체에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용어의 사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접근성'이라고 생각한다. 두산아트센터에서 접근성 매니저를 할 때 그런 용어들을 모두 '접근성'이란 단어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이 쓰는 용어를 살펴보면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은 쓴다라는 뜻이고 '고려'는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예매를 할 때 보통 상세페이지에 '온라인 예매가 불편한 장애인고객은 접근성 매니저가 도와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보편적인 문장이다. 내가 의문을 가진 점은 장애인 관객이 온라인 예매가 불편하다면 노인들과 아이들, 심지어 나에게도 불편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전엔 '온라인 예매가 불

편한 관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불편하다'라는 워딩을 빼고 '전화예매가 가능합니다'라고 수정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접근성 매니저 번호를 적어놓으면 거의 장애인관객들이 전화를 건다. 이것이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들을 시혜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길 바라는 생각에 이렇게 변경했다. 이는 장애인 관객이 그들을 도와주는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공연을 즐기고 당연히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해서 고민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워딩을 쓰면 좋을지 극장의 실무자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접근성 매니저는 프로덕션의 모든 파트와 협업한다. 우리가 조성하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극장의 제작진들과 함께 논의한다. 보통은 접근성 매니저가 접근성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관객을 만나는 것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접근성 매니저는 이 작품을 접근성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어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작품에 맞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연장에 접근성 매니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관객의 반응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로비에 하우스매니저와 함께 접근성 매니저가 있도록 하며 연습과정에서부터 창작진과 함께 논의한다. 관객들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 매니저가 고민하는 것이다.

**이유진** | 작업을 하면서 접근성 매니저와 함께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접해본 분들도 있을 거다. 한국에서 접근성 매니저는 2018년부터 공연계를 중심으로 접근성 붐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 배우 등이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을 하면서 등장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접근성 매니저를 신 직업 중 하나로 발표했다. 이게 직업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어떤 계기로 접근성 매니저가 되었나?

**이청** | 공연예술을 사랑해서 스텝으로 일하다가 2019년에 연출님이 자막을 해보자고 제안을 주셨다. 당시 나는 컴퓨터 매니저로 있었는데, 연출님이 내가 배우니까 대사를 띄우는 것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해주셨다. 예전에 디자인 일을 잠깐 경험해서 일종의 디자인을 함께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처음 자막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2019년쯤에 자막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접근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 접근성 관련 업무들이 많은데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없고해서 자막 디자인을 하면서 접근성 매니저로 업무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간작업으로 시작했는데 예산도 부족했지만 점차 국공립기관에서 필요로 하면서 이런 고민과 직업이 영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작년에 접근성 매니저를 모셔서 같이 했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느끼고 있다. 공연이 확장되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것은 심리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버스 광고를 하면 비장애인은 알지만 장애인 관객은 모르기 때문에 수어해설 같은 접근성이 필요하다. 장애인 관객은 접근성매니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나도 관객이 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낀다. 이제까지 활동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 있는지, 또는 계기가 되었던 공연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청** | 두산아트센터의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공연을 할 때 가장 크게 느꼈다. 두산아트센터 직원과 창작진분들 모두의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보통 나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굳이 이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 공연을 할 때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접근성 논의 했다.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 그 마음들이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노력들이 관객들에게 가 닿는다. 그래서 두산아트센터에서 작년까지 했던 공연들의 관객 수 자료를 봤는데, 그 때 한 공연의 장애인 관객 유입수가 작년대비 200 퍼센트 이상 올랐다. 그 공연은 3회차만 운영했는데 3회차 동안 50명 정도의 장애인 관객들이 왔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지를 가진 것이 관객에게 결국 닿는다고 느꼈다.

**경기도박물관 |** 접근성 매니저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들이 전시장이나 박물관까지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청 |** 사실 시각장애인 관객들을 모시기가 어렵다. 나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접근한다. 내가 느낀 것은 '입소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관객들에게 소문을 내면 커뮤니티 안에서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지관에 홍보하고 메일을 몇 백명에게 하는 것 보다 입소문 훨씬 더 많이 퍼진다. 그리고 이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나 하우스 매니저가 관객들을 모시는 것보다 활동 보조사분과 오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하우스매니저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가까운 지하철들에서 이동지원을 해주는 경우다. 약속시간과 위치를 지하철 출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 위치까지 이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유진 |** 접근성 일을 하면 결국 사람, 소통, 시간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은 돈이겠지만, 우리 작품, 전시, 공간을 방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한다.

**이청 |**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일을 할 직원을 미리 정해야 한다. 지정하지 않으면 약속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관객은 비장애인 관객과 오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용기 있는 한 걸음이다. 극장에 처음 오는 사람도 있다. 지정된 인력이 어디까지 약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유진** | 접근성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례를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다.

**이청** |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공연의 경우 창작 초연이었는데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SF연극이어서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수어 통역을 고민하다 수어이름들의 약속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었다. 수어 통역사와 접근성 매니저가 함께 촬영해서 로비에 계속 틀어놓고 관객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객석 4면 스크린에 띄워놓았다. 농인관객들이 한번 보고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했다. 수어에는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만든 수어를 보여주었다.

음성소개의 사례로는 〈댄스네이션〉의 음성소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음악이 함께 나오면서 음성소개가 들린다. 기존의 음성소개와 다르게, 실시간 음성해설이 없는 공연이었다. 무용장면이 많고 중요한데 실시간 음성해설이 없었다. 그래서 음성소개에서 움직임과 음악을 넣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장면에서 사용하는 음악들, 이 음악이 나올때 솔로댄스가 나온다는 식으로 소개를 했다.

또한 <댄스네이션>에서 배우를 소개하는 음성은 주로 배우 본인이 자신의 역할을 소개한다. 강보람 배우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창작자이다. 장애인 배우의 목소리를 넣은 것은, 아직 장애인 배우가 익숙하지 않은 비장애인 관객이 이 목소리를 미리 듣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말과 말사이 간격이 많고 이것을 무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느리게 말하는 것을 사 고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소개를 미리 들으면 익숙해진다. 신체적 특성의 경우도 시각장애인 관객이 상상하기 쉬운 신체적 특성을 미리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작업 들을 보통 접근성 매니저와 배우가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비 장애인, 장애인배우와 함께 소통하며 작업하고 있다.

**이유진** | 공연장르가 아닌 분들은 음성소개가 뭔가 싶을 수 있는데, 공연에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음성 녹음된 공연 소개를 보내주거나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정 부분 스폰서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미리 공지한다. 음성은 음성파일로 제작하는데 아르코의 경우는 영상으로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접근성의 여러가지 방법을 만나면서 장애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공연예술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화예술 콘텐츠의 수어통역

**이유진** | 이번에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분은 공인수어통역 '잘함'의 김홍남 수어통역사님이다.

**김홍남** | 나는 '잘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어통역사들이 사실 한국농아인협회라는 곳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내가 프리랜서였을 때는 서울에 수어통역사가 나만 있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고 그때 주변을 보면 수어통역사들이 혼자 어려운일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농아인들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팀을 이뤄서 하다가 '잘함'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3년동안 크고작은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의사소통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행사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촛불집회에서 몇년동안 수어통역을 했다. 국가행사. 공연까지 전 영역을 뛰어다니고 있다.

내가 공연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수어통역사 자격을 따고 2년 정도 지난 즈음에 양희경 선생님이 년센스라는 공연에 수어통역을 넣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 주면서였다. 사실 참석자 중에 농인이 없었다. 당시에는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었다. 장애인이 문화예술에 관람 및 참여하는 비율은 5%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중에 또 청각장애인은 몇 %일까? 관람객 2퍼센트 중에 0.9%였다. 현재 수화한지 25년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청각장애인 관객을 찾아볼수도 없었다. 한국영화는 자막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농인들이 한국영화를 볼 수없는 게 현실이었다. 지금도 청각장애인들은 '같이 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극장에서만 영화를 볼 수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제에서 자막과 수어통역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 농인들과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 **#극소수를 위한 접근성**

### **#우리는 함께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각장애인중에서도 제1언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농인이다. 건청인들은 38.8%정도 이용한다. 주중에는 약 57% 정도로 2명중에 한명은 문화관람을 한다. 장애인들을 2% 밖에 되지 않지만 건청인들은 많은 수이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수의 인원이 보는데 왜 접근성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수도 있다. 예술위원회 실태조사 중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접근 서비스 없이도 공연 등에 참석할 수 있지만 제 친구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한 청각장애인 엄마가 딸 아이와 겨울왕국을 보고 싶은데 아이를 위해서는 더빙이 된 영상을 봐야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자막영상을 봐야하는데 둘 다를 포함하는 영화는 없어서 정말 너무 속상해했다. 그분이 나는 내 딸과 함께 영화 한편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 사연을 듣고 '잘함'에서는 특히 어린이공연은 예산관계없이 무조건 통역해서 보여준다. 어렸을 때 농인아이들은 책을 접하기 어렵다. 들어오는 소스가 있어야 부모 형제들과 이야기를 한다. 농인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정서가 발달되고 그것으로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린이공연은 무조건 통역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 #수어통역의 왜? 무엇을? 어떻게?

그렇다면 어떤 통역을 해야하는가? 왜 해야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네가지로 축소를 했다.

## #수어를 수용하는 대상

첫 번째는 수어라는 것은 수용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다. 청각장애인은 장애를 분류하는 용어이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용어다. 그렇게 표현하는 청각장애인은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청각장애인이다. 귀가 안들리면 중복장애를 가진다. 귀소리가 들어오면 뇌에서 작용해서 명령을 내려서 목소리로 낸다. 하지만 이 소리자극이 없으면 뇌에서 반응이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까지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청각장애=언어장애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43만

4813명(들리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 포함)이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청각장애인은 41만 1749명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가 심한장애, 경증장애로 나뉘었다. 농인은 대부분 심한 장애(2급장애)이다.

수어를 사용하는 1,2급은 다해봤자 5만명정도다. 국어를 제1언어로 쓰는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는 8-9만명정도이다. 수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 분이 다수라는 것이다. 차라리 수어를 잘하던지 글을 정말 잘 안다던지 하는 그런 분은 많지 않다.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 그런 분들은 피나는 노력을 한거다. 아주 극소수다. 그래서 수어가 없는 자막의 연극은 이해도가 30% 넘어가기 어렵다.

음악의 경우 더 까다롭다. 이는 인공와우가 있어도 어렵다. 보청기는 해당하는 주파수 영역만 들을 수 있다. 음악영역대는 들을 수 없다. 음악을 신경쓴 것은 건청인을 위한 것이지 농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농인은 원래 음악이 어떤 소리인지 못한다. 이 소리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 소리 때문에 보청기를 빼고 소리를 접하는 분도 있다. 수어통역도 보고, 배우 입모양도 보고, 무용도 보고, 농인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눈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극을 만들고 그 연극을 그들에게 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연출의 영역이고, 수어통역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렇게 보겠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밤샘회의를 한다.

그렇다면 목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기기 소리로 들리게된다. 아무리 크게 발화를 해도 기계소리로 들리게된다. 보청기는 좀 낫다. 기계를 통해서 소리 확장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식환자들은 신경세포자체가 죽었기때문에 다르게 들린다. 그리고 저음역대의 소리는 농인들에게 뭉개진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할까?

## **#왜 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1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무엇을 해야 할까?**

연극의 경우 수어에서 중요한 것은 통역의 위치다. 대체로 상수, 하수에 몰려서 하는 방식과 무대 안과 밖이 있다. 공연의 경우 배우와 수어통역사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 2인극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는 두 배우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연극에서는 배우와 같이 붙어서 하기도 하고 따로 움직이며 다른 세상을 만들기도 했다. 또 어떤 연극에서는 배우와 의상과 머리 모양도 똑같이 만들고 메이크업을 통해 배우의 내면의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연출을 하면 통역의 방향성도 달라진다.

## #어떻게 해야 할까?

접근성의 포인트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수어통역사를 영입할 때 자격증의 유무를 살피는데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이라고 보면 된다. 그것보다 같이 얼마나 어떻게 협업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어와 자막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인공와우처럼 어릴때부터 청력의 손실이 있을 경우 기계의 도움을 받는데, 수어통역하는 분들의 수요는 줄었나?

**김홍남** | 매일 통역사들은 늘고있다. 예전에는 뉴스만 나왔는데, 드라마, 예능에도 나오고, 농인을 실제로 접할 기회없이 그냥 자격증따서 방송으로 진입하는게 코스처럼 됐다. 그래서 통역의 질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은 담당자들이 잘 확인해야 한다.

**참여자** | 한국어 수어가 있듯이 나라마다 수어가 다 다른가?

**김홍남** | 수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다. 언어문화가 다르면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해외 작가를 섭외할 때 작가가 청각 장애인인 경우 미국수어를 할 수 있는 분과 한국수어를 같이 하는 분이 드물어서 번역을 3번에 걸쳐서 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국제 심포지엄처럼 미국 외의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연사를 초청하는 경우 어떻게 통역을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김홍남** | 사실 ASL이나 다른 언어는 농인에게 그 일자리를 준다.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언어가 가능한 농인을 찾는다. 그리고 그 농인과 같이 협업을 한다. 내가 한국수어를 하고 농인에게 통역을 부탁한다.

**이유진** | 농인 수어통역사와 청인 수어통역사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 공연은 자막을 프롬프트 에 띄우고 그를 청인통역사가 하고 그 통역을 농인 통역사가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때 걱정이 많이 된다. 배우를 등쳐야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통역에 시간차가 발생한다. 현장예술에서는 시간차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할지 고민이 된다.

**김홍남** | 농인 통역사는 그들만 사용하는 은어같은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감각적이다. 농인통역사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주고, 청인 통역사는 음성을 전달받아 한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연은 청인 통역사가 하고 공연엔 농인 배우가 무대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인배우가 퍼포먼스를 할 때 음성통역은 발화에 맞춰서 청인통역사가 하

는 것이다. 자막을 보고 농인 통역사가 하는 것은 일자리의 영역에서 생긴 현상이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인 통역사가 없이 농인 통역사가 자막만 보고 통역을 하는 것은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셨어요?'라고 말한다.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청인 통역사와 농인 통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고민했어야 한다. 공연에 들어가며 공연언어가 있고 수어도 수어언어가 있는데, 공연통역에 들어가는 농배우들은 일상발화를 한다. 그러면 안된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한다. 시간이 5-6배 더 들어간다. 힘든 작업이다. 장애인과 함께 하려면 1만큼이 추가되었을 때 10만큼을 예상하고 진행해야 한다.

## #모두에게 불편한 배리어프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이 프로그램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성이라는 제목을 쓰긴 했지만, 2019년 미술계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 이런 타이틀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통역과 같은 접근성을 고려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미술관 프로그램도 참관했는데 말한 것 처럼 생각보다 수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패드로 필담을 하는 상황도 마주했다. 시각장애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점자도 준비했는데, 점자를 많이들 모르시더라. 기관담당자 입장에서 많이 준비가 된 상태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이런것들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나 경험에서 수어통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만났을텐데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홍남** | 사실 배리어프리가 모두에게 불편하다. 모두에게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배리어프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수어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을 본다. 수어를 가르치는 순간 장애라는 것을 인정해야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건청인들이 불편하면, 장애인들은 조금 편해진다. 그것을 인지해야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시는 관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시는 장애인 관객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티켓은 나가야하고, 누가 올지는 모르겠고, 티켓은 이미 판매했고, 그러면서 문제는 발생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예매할지 모르는 티켓을 남겨놓을수는 없고, 이런 상황들이 여전하다. 그래서 나도 고민이다.

연극은 좀 어렵지만 다른 행사는 오시는 관객이 누구인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눈으로 농인이 파악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 그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눠보고 그 분의 수화수준에 맞춘다. 연극같은 공연의 경우 수화를 바꾸기 쉽지않다.

작년에 지방에서 100명이 버스를 타고 와서 본 적이 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배리어프리가 궁금해서 대절해서 오신다. 그럴 때는 그분들이 어느 유형인지 머릿 속으로 고민해 보고 그분들을 위한 번역을 진행한다. 의미는 가져가돼, 번역의 형태를 고민한다. 그리고 연출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까요? 하고 협의한 뒤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 |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점자나 수어통역인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궁금하다.

**김홍남** | 자막을 쓰는게 좋다. 시각장애를 위한 큐레이터나 도슨트가 있으면 좋다. 함께 이동하며 해설해주는 분들이 좋다. 버튼 누르면 음성해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의 단점은 버튼이 어디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조각 같은 것을 만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오면 그냥 터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니 형태를 설명해주는 음성해설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이 있습니다' 라고 음성이 계속 나오고 형태나 색깔 등을 설명하면 진짜 도움이 된다. 청각장애인에게는 누르면 영상으로 수어가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좋다. 수어를 모르지만, 귀가 안들리는 난청인들은 감각적으로 알아듣는다. 수어와 자막은 한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유진** | 우리 극장이 예전엔 비상대피멘트를 음성으로만 제공했는데, 최근에 자막과 수어통역사가 나오는 영상을 만들었다. 모든 공연에 틀고있다. 그걸 통해서 '아 수어로 소통을 하는 사람도 이 극장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 감각할 수 있구나'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감각하고 변화를 느끼게 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 장애예술인이 바라보는 문화예술기관의 접근성

## #읽기 힘든 공모자료

**김시락** | 나는 시각장애인이라 공고문을 접하면 스크린리더로 읽는 게 걸리는 부분이 많았다. 문화재단 사업의 경우 공고문에 파일이 아니라 공지사항에 게시될때 이미지로 게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공모 정보를 모아두는 사이트들도 관심있는 공모 정보를 받으려면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이 쉽지가 않다. 실제로는 가입을 시도해보다 말았다. 그래서 다수의 사업을 찾아서 지원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비교적 접근성을 고려해줬지만, 사실 다른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어려움이 큰 것 같다. 지원서 작성, 발표 이런 것들에 1차적 문제가 있고 사업을 진행할때도 혼자 진행할 수 없다. 많은 서류작업이 있는데 그 서류들이 그런

가독성을 떠나서 PPT형식의 보고서를 요구한다.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올해 장애예술창작센터 사업을 지원했더니 무장애 지원금이 있었다. 이 지원금은 관람객 대상이 아닌 창작자 본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으로 정산하고 취합하는 부분은 비장애예술인에게도 쉽지않아 비장애인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어렵다. 활동지원사분들도 이런 작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 어려워한다. 이런 실무와 서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지난주에 다른 창작지원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에 가서 나눴던 대화중에 이렇게 있었다. 그 사업의 경우 장애예술인에게 창제작을 도와줄 테크니션을 지원해준다. 시각, 음악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구현해볼 기술진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애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인력풀을 구축해서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더 나아가서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장애예술과 비장애예술의 접촉이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무장애 지원금도 있지만 사실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사용하면 좋은데 그

전에 재단이나 기관에서 회의공간이나 수어통역사님, 수동휠체어가 지원이 되면 장애예술인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작업을 발전시킬때도 훨씬 더 부담이 적을 것 같다. 예술활동이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된다. 음성해설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접근성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예술가 당사자에게 온전히 넘길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공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제공이 전무한 경우들이 많다. 공공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접근)만 갖추면 접근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접근성을 제공하는 공간이 실제로는 접근성 측면에서 훌륭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 **#장애예술가로서 기관에 하는 당부**

3-4년전보다 공연에 음성해설이 많아지고, 접근성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인 것 같다. 접근성이 확보된 공연을 운영하는 곳은 국립극단, 국립극장, 아르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정도인 것 같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꼭 필요하지만 일정 정도 되면 거기에만 안주하는 것 같다. 어떤 기관만 하는게 아니라 표준 가이드가 생기고 다른 기관에 확산되고 보급돼서 장애예술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생활에서 장애예술인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예술 축

제가 아니라도 어떤 축제라도 장애예술인들이 편하게 관람하고, 편하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것이 장애인분들이 공연장에 얼마나 오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작년같은 경우 가이드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더 힘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안동시에 장애기관이 얼마나 있고 그 기관에 계신 분들 중에 본인 의지로 공연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했다. 조사한 바로는,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비장애인의 경우 지역내의 거버넌스가 잘 구성이 되면 홍보가 충분히 가능한데 장애인분들은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훨씬 더 전달된다. 그래서 장애인 회원제를 설립했다. 하지만 공연 당일에 누가 올지 모른다.

우리는 이번에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발레를 준비한 이유가 발레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였다. 그래서 음성해설을 발레리노에게 부탁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발레를 잘 아는 사람이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각자의 포지션에서의 노력이 빛을 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공연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음성수신기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필요한 분은 접수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음성 수신기도 이틀하니까 200만원이 들었다. 첫날은 신청자의 수가 적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

는 분들에게 직접 갖고가서 들어보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 다음날에 100명이 더 많이 들었다. 일반인도 음성해설을 통해 상세한 동작 설명 등을 들으니까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만족했다. 누군가를 위한 접근성 장치가 있으면 무장애 공연이라는 인식개선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변화가 일상생활에 스며드는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김시락** | 진행했던 혹은 진행할 프로젝트들에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 현재 준비 중인 <들리는 춤>이라는 작품도 내가 움직임을 더 느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사실 박물관은 미술관에 비해 접근성은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두 곳 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 가서 볼 수 있는게 많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도 모니터링을 한 적 있는데 전철역에서 굉장히 멀고 거기까지 가도 할게 없으면 갈 이유가 없다.

음성해설의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는 저시력 장애인들에게는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보완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나는 (전맹시각장애인으로서) 서서 들으나 누워서 들으나 차이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촉각적이나 청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고성공룡박물관** | 우리는 주로 공룡이나 화석등 만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배리어프리를 준비 하면서 점자도 준비하고 전문적 설명과 함께 만질 수 있는 것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

**경기도박물관** | 박물관은 접근성 제공이 행정적으로는 되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취약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시도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 여러가지 고민 끝에 이번 사업에 지원하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 보다 새로운 전시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전시다. 전시 주제를 잡은 것 부터, 촉각, 청각, 시각 등을 활용해서 만드는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렵다.

**공주문화재단** | 배리어프리 공연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 분들 활동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역예술가 분들도 같이 협동작업하면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게하고 학생들이 많이 보러 와서 배리어프리공연을 경험을 하고 성장하게 하고 싶다. 그들이 성장해서 배리어프리 공연에 열린마음으로 보고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공연 중 공연장 외부 공간에서는 터치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이 오케스트라라 세계각국의 악기를 만져보고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 계획이 있다.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김시락** | 그런 공연을 하게되면 가보고 싶다. 일본의 악기박물관도 가보고싶다고 생각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관심이 많다. 익숙한 소리든 낯선 소리든 관심이 많다. 그것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면 시각장애인들이 찾아가보고싶을 것 같다.

**공주문화재단** | 방들을 아프리카 타악기, 오케스트라 타악기 등 소리에 따라 악기를 분류하고 오케스트라 타악기 체험을 전공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반을 구성했다. 실제 청각장애인들은 진동으로 티파니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음정에 아주 민감해서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악기를 많이 넣기보다 일대일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 악기 전공자를 어시스트로 함께 할 수 있게 예정이다. 문화재단에서도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는 실제로 연주할 때 불을 끄고 한다. 이런 장치를 통해 장애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높아질 것 같다.

## #장애인이 느끼는 접근성

**이유진** | 아르코에서 무용공연 <빨래방> 터치투어를 하신 걸로 안다. 두산이나, 국립극단에서는 모형으로 터치투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중에 선호되는 것이나 개선점을 말해줄 게 있는지 궁금하다.

**김시락** | 나는 사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무대를 직접 보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접근성 테이블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무대 규모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돌아본다고 해도 10m~20m이상되는 공간의 규모나 느낌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접근성 테이블에서 전체적인 구조

를 보니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보완이 되고 해소가 되는 것 같았다. 전체적인 윤곽이 이런 것이구나 등이 파악이 된다. 가능하면 둘 다 했으면 좋겠다. 무대에 어떤 장치가 소품이 많지 않고,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접근성 테이블이 나은 것 같다. 하지만 구조물이 많고 소품이 많으면 직접 무대를 밟아보는게 좋은 것 같다.

**충북교육도서관** | 기본 포맷이 영화이다. 혹시 배리어프리 영화도 본 경험이 있다면 폐쇄형이랑 오픈형 중에 어느 것이 받아들이기에 더 편하고 좋은지 물어보고 싶다.

**김시락** |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로 그렇고 현장에서 듣는 크고 웅장한 공간을 채우는 소리가 있는데 폐쇄형은 한쪽 귀가 가려져서 그 느낌이 많이 반감 된다. 그래서 영화같은 경우 집에서 많이 보는편이다. 영화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가치봄영화'라고 한달에 2편정도 하는데 평일 낮시간에 특정 영화관으로 한정되어있고 회차도 적어서 혼자 찾아가기 어렵다. 대부분 큰 복합 쇼핑몰에 있기 때문에 티켓부스 찾아가는 것조차 어렵다. 그래서 영화의 경우 영화관을 직접가서 본적이 거의 없다. 연극이나 뮤지컬은 혼자서도 잘 간다. 영화는 영화관까지 가는 접근성이 힘든것 같다.

**이유진** | 접근성 공연 제작할 때 당사자 모니터링이 장애예술가 분들과 비장애예술가 분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공연을 준비할 때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공연 만들다 보면 제작에 급급하다 보니 그 시기

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프로덕션에 초반부터 들어와서 하기에 예산의 범위에 따라 고민이 있다. 시락님은 모니터링으로 여러번 극장에 온 걸로 알고있는데 그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김시락** | 여러 여건때문에 쉽지 않다. 접근성을 고려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그것이 창작의 제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접근성 고려가 어렵다고 전체 틀을 바꾸거나 원래 보여주고 싶었던 것 (음성해설이나 문자통역이 쉽지않으니까)을 빼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보다 그냥 할수있는 만큼 전달하고 어려운 부분은 차후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너무 큰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이유진** | 홍보는 어렵지 않나? 웹접근성은 당연하지만 요즘은 SNS 홍보를 많이 고려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곳으로 광고를 하면 잘 전달이 될까? 라는 걱정이 있다. 시락님은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궁금하다.

**김시락** | 공연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뜬다. 그런 SNS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SNS도 많은 사람이 보지만 그것도 유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시각장애인 중 일일이 찾아보는 것을 번거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내 생각에는 SNS말고 기존 방문이력이 있는 관객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공연소식을 받아보고 싶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을 받아 공연정보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

면 꽤 많은 분들이 받아보려 할 것이다. 내 공연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또 다음에 공연 있으면 알려달라. 무조건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하면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박물관** | 주로 공연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각예술 감상에서 인상깊은 부분을 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시락** | 일본에 갔을 때 손으로 보는 미술관과 청주에서 본 촉각 전시가 기억에 남는다. 또 '우리들의 눈'이라는 갤러리에서도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한 전시가 있었다. 사실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미술관 박물관은 아직 경험치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것 같다.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최근 토탈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 작가 방앤리의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 분들의 작품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일부 작품에 접근성을 제공해주었다. 접근성 테이블, 음성해설을 진행했다. 여러가지로 재미있었다. 예산측면인지 그림도 전시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영상물 1개 그림 2개에 대한 접근성만 경험했다. 사실 토탈미술관은 이동 접근성이 많이 안좋았다. (비장애인도) 차를 타야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휠체어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시에 이동편의성을 꼭 고려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

# 기관 실무자의 현장 경험

**정재은** | 사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드릴 정도의 내용일지 모르지만 전시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나누고자 한다. 환기미술관은 올해 상반기에 3월부터 7월까지 〈하나를 향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진행했다. 시민들과 발맞춰서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시민참여형 배리어프리 전시다.

환기미술관을 와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술관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념적 성격의 미술관으로 세워졌다. 건축적 미학적 가치가 높은 미술관이다. 건축학도도 많이 찾아온다. 반면 오래된 만큼 불편한 점들이 아주 많은 미술관이다. 이번 전시는 예술성에 공공성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배리어프리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기미술관 뮤지엄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다.

배리어프리라는 단어를 장애인에게 국한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관객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우리 기관만의 기획으로는 이끌어가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획했다. 그래서 이 기획의 배경에는 〈박물관하

관 미술관 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 특별전시)공모가 있다. 해당 공모 선정 후, 약 2달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5월에 본격적인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준비해서 진행했다.

공모 사업의 주제와 방향성은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이 주제였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서 미술관을 해석을 했다. 그 안에서도 평소에 미술관에 오기 힘들었던 분들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아직 낯설고 불편한 분들에게 좀 더 친절한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주제를 해석했다. 여기에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30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교육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그 중에서도 문화복지프로그램(문화취약계층 대상)을 많이 했다. 점자 안내서를 제공한건 2004년이 처음이다. 2007년부터 아동복지센터~ 2013년 치매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전시가 아닌 교육프로그램이다. 김환기에 대한것은 점자 안내서만 있고 그 이후로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성인 대상 포럼, 강연등을 주로해왔고 2004년 이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왔다. 전시에는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2013년 이후로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상도 타고 활발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 이면에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다.

작년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박물관 미술관 주간을 통해서 <들리는 뮤지엄 보이ς>라는 시민참여형 전시를 처음 기획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 위에 들리는 전시로써 기획했다. 약 1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전시를 감상

고 그 감상을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전시 형태를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했다. 이 때 다양한 관람객, 특히 시각장애인, 농인들이 모여서 같이 전시를 만들어나갔다. 그때 경험을 살려서 올해 뮤지엄 가이드를 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가이드 등을 뮤지엄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 진행하게 되었다. 내부적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뮤지엄 가이드를 통해서 전시에 대한 내용과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규해설사를 도입해 진행하게 되었다.

## **#공간의 시작점,**

### **모두를 위한 전시 안내 공간 마련**

전시장에 동행 서포터즈가 있고 이들이 시민 관객들을 맞이한다. 동행은 현장에서 직접 신청해도 되고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는 장애인만을 위한 서포터즈는 아니다. 외국인, 어르신,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전시 관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자이다. 일일 현장판을 배치를 해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현장상황을 같이 동행하기도 한다.

공간 자체는 다정한 전시를 표방해서 하고 있다. 김환기 선생님의 대표작품과 함께 다양한 대상을 아우르는 전시 구성 자체와 주제를 맞췄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때도 그런 차원에서 작품을 설명하기도 한다.

## #다양한 접근성 콘텐츠

청각장애인을 위한 뮤지엄 가이드, 작품 영상 해설, 음성해설과 오디오 드라마를 제공한다.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뮤지엄 가이드와 전시 도슨트도 했다. 요즘 시도하는 쉬운 말 해설로 다시 풀이를 했다. 성인분들이 옆에 같이 듣다가 이런 시도가 성인들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반응이 좋아서 횟수를 늘리기도 했다.

전시장 2층에는 점자 연보를 제공했다. 전시된 사진과 드로잉은 압인으로 제작했고 텍스트도 점자 연도로 제작을 해서 만져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콘텐츠는 실제 시각장애인보다 일반 관객들이 더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 사실 색은 필요가 없다. 백색으로 이뤄진 점자 가이드를 제공했다. 그리고 실제 시각장애 어르신들과 함께 느꼈다.

김환기 압인 드로잉은 청년 예술인이 제작했다. 몇 가지 사진을 추려서 손수 수작업으로 제작을 했다. 형태에 따라 압인이 확실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쳤다.

공간의 작품이나 캡션을 전체적으로 낮춰서 걸었다. 미술관이 층고가 놓은데 최고 50cm까지 낮게 배치를 했다. 보통 점화작품의 경우 아우러 볼 수 있게 높게 거는 편인데 어린이를 고려해서 낮게 배치를 했다. 또한 작품의 주요한 미학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촉각교구를 만들어서 표면이 만져지게 했다.

모래가 섞여 있는 거친 표면들, 튀어나온 부분들을 느껴볼 수 있도록 제작을 했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가이드도 이미지와 시각화 영상을 같이 제공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촉각 가이드 콘텐츠도 재질, 온도, 무게 등 요소마다 촉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해설영상을 한 것이 아닌 수어해설사와 함께 동행한 설명을 했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서도 설명을 했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로그램 진행을 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느껴볼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눴다.

**이유진** | 다양한 감각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참여자** | 배리어프리 관련해서 전시가 많아졌는데 미술관에는 배리어프리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촉각전시가 늘어나고 있고 점자문자 제공이나 해설통역도 많이 제공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재은** | 미술관 내 접근성 매니저라고 불리는 담당자가 따로 있지는 않다. 접근성은 이번 전시 진행하면서 내가 조금 더 담당하게 된 것이었다. 배리어프리 전시에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동영상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하고 다양한 촉각 전시들 예를 들어 3D로도 만들고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했겠지만 우리 전시 취지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됐다. 이번 전시 배경이 되는 <함께 만드는 뮤지엄>이라는 것이어서 시민들과 함께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국공립 박물관에 비해서 세련되고 완성형의 콘텐츠는 아니더라도 함께 만드는 촉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도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QR코드를 배치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못 들으니 우리가 직접 할 수 밖에 없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서포터즈를 기획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한 시각장애인들은 오시면 위치와 동선에 대한 정보 같은 가장 기본적인 안내부터 필요했다. 그런 분들은 이동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동행 서포터즈를 기획하게 되었다. 공간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발로 직접 부딪힌 전시인 것 같다. 직접 해보는 경험의 계기가 된 전시이다. 우리가 대면했던 시민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만족이 있는지 개선이 있는지는 나서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좋은 기회였다.

**참여자** | 김환기 선생님 작품을 실제로 보면 그림이 압도한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시각장애인분들이 같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대표적인 작품을 시각장애인들이 감상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이 있나?

**정재은** | 촉각 콘텐츠를 통해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진행이 있었고 소리와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번 전시는 설명하기 좋고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자연과 삶을 섞인 전시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같다. 하지만 추상화이기 때문에 추상의 세계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감각인 음악이나 향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자폐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그걸 너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들려 드리는 이야기를 받아드리고 그 과정자체를 즐겁게 즐기는 것 같다. 시각장애만 갖고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 청인들에게 설명하는 것 같은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 이 부분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케이스가 다 달라서 어렵고 여전히 숙제로 많이 남았다. 우리가 시각장애라는 이유 하나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같이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하면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야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애써 작성한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렇게 흥미로워 하시진 않았다.

**경기도박물관** | 전시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들 다 한 느낌이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인상깊었던게 있다면 어떤것일지? 그리고 뮤지엄이란 곳이 작품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놀이동산도 아니고 교육센터도 아니고 작품을

보여줘야 하는 곳이다. 시각적으로 전달해야하는데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왜 여기서 이것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먼저 하신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실게 있는지 궁금하다.

**정재은** | 피드백으로는 작년 <뮤지엄 보이스>에서는 또 오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한번도 미술관에 와본적 없는 분들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는데 일일이 거동을 함께 해야 하는데 외부 정원까지 다 보고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 억지로 감상한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었는데 그런데 진심으로 너무 기쁘다고 했다. 장애인복지관 통해서 협력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복지관에서 또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이유가 생긴거다. 이분들이 오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구나를 뮤지엄 가이드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의 감상에서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이번에 많은 장애유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관람객과 저시력자 관람객의 반응은 달랐다. 그런데 다들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하셨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리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장벽, 선입견으로 보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다. 지금 많이 나와있는 해설과는 다르게 미술관 공간에 맞게 특화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수어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수어를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대화하면서 처음 알았고, 청각장애를 위한 스크립트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대화에서 청각장애인분들 중에서는 태어날때부터 글을 못읽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많은 과정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최대한 해보고 싶었다. 그래도 다음 기회에는 우리 공간의 특성에 맞게 다시 풀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해본 입장에서 우리는 배리어프리라는 의미를 장애인에게만 두지 않았다. 어린이 도슨트를 성인분들이 더 즐겁게 받아들일 것처럼 모두에게 더 친절한 전시를 해보자가 시작이었다. 김환기의 다정한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다정한 전시가 되자가 기본 취지였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게 되었다.

### **참여자** | 어떤 성과가 있었나?

**정재은** | 김환기 110주년이라 김환기 전시를 해야하는 해로 기획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들리는 소리는 “또 김환기냐?”라는 소리다. 사실 우리 소장품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작품을 어떻게 다르게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김환기를 포기하면 관객을 포기해야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김환기라는 하나의 화가와 예술가와 예술성을 평소에 접하지 못한 부분들로 기획을 했고, 뮤지엄 가이드라는 타이틀에서 작품 구성까지 일반 관객들이 봐도 새로운 전시가 될 수 있게 했다.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드리는 것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 같다. 향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호불호가 갈리는 콘텐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바통을 넘긴거다.

그래도 참여하신 장애인분들, 비장애인 관람객들에게도 전시의 내용이 와닿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한편으로 감동을 받았다. 어떤 콘텐츠가 작품을 압도할 수 없진 않을까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그래도 관객이 최대한 잘 받아들여주셔서 고맙다. 물론 안좋은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계단이 많은데 무슨 배리어프리냐 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한 전시로서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으로 유의미한 전시였다.

**이유진** | 40년된 건물에서 근무하는 나도 공감된다. 외부로 엘리베이터를 제작했는데 휠체어 올라오는 바닥을 갈아 내는 것도 많은 협의가 있었다. 나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한 것 같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놀라운 반면 접근성 매니저가 없는 환경의 담당자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참여자** | 시민들이 동행가이드로 함께 했는데 사전 교육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정재은** | 이력서는 아니지만 신청서가 있었다. 약 20명정도 활동을 했다. 워크숍을 기본적으로 거쳤다. 내부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었다. 시각, 교육, 어린이 등이 있었다. 그래서 별도 스크립트를 제공했다. 그리고 별도의 유니폼과 가방이 있었는데 가방안에 스크립트를 넣었다. 그 현장에서 같이 보고 편하게 설명하고 QR코드가 있는 곳을 설명하고 동행에 따라 차별화를 뒀서 진행했다. 이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행동분야 등에 대해서 뱃지와 같은 장치

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미술관이나 기관에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었다. 기쁘게 자진해서 활동해주셨다. 타기관에서 활동하는데 배리어프리 활동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활동했던 분들도 있었다. 조금 부족한 분들은 동행을 할때 학예사가 같이 동행한 적도 꽤 많고 그리고 일지를 매번 쓴다. 작성된 일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피드백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한달동안은 현장 지킴이겸 현장 공간, 작품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동행 활동을 했다. 3월 전에는 워크숍,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피드백받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했지만 과정을 받아 들여 주시고, 활동을 해주셨다.

**이유진** | 나도 생각해보면 첫 회차에는 모든게 갖춰져야 한다는 강박때문에 장벽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접근성이라는 것이 내 친구와 함께 어떻게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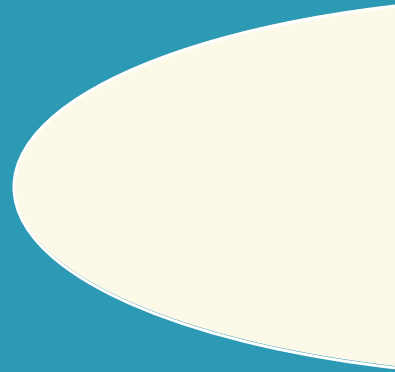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워크숍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시간이 지역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서 큰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좋은 시간이길 바란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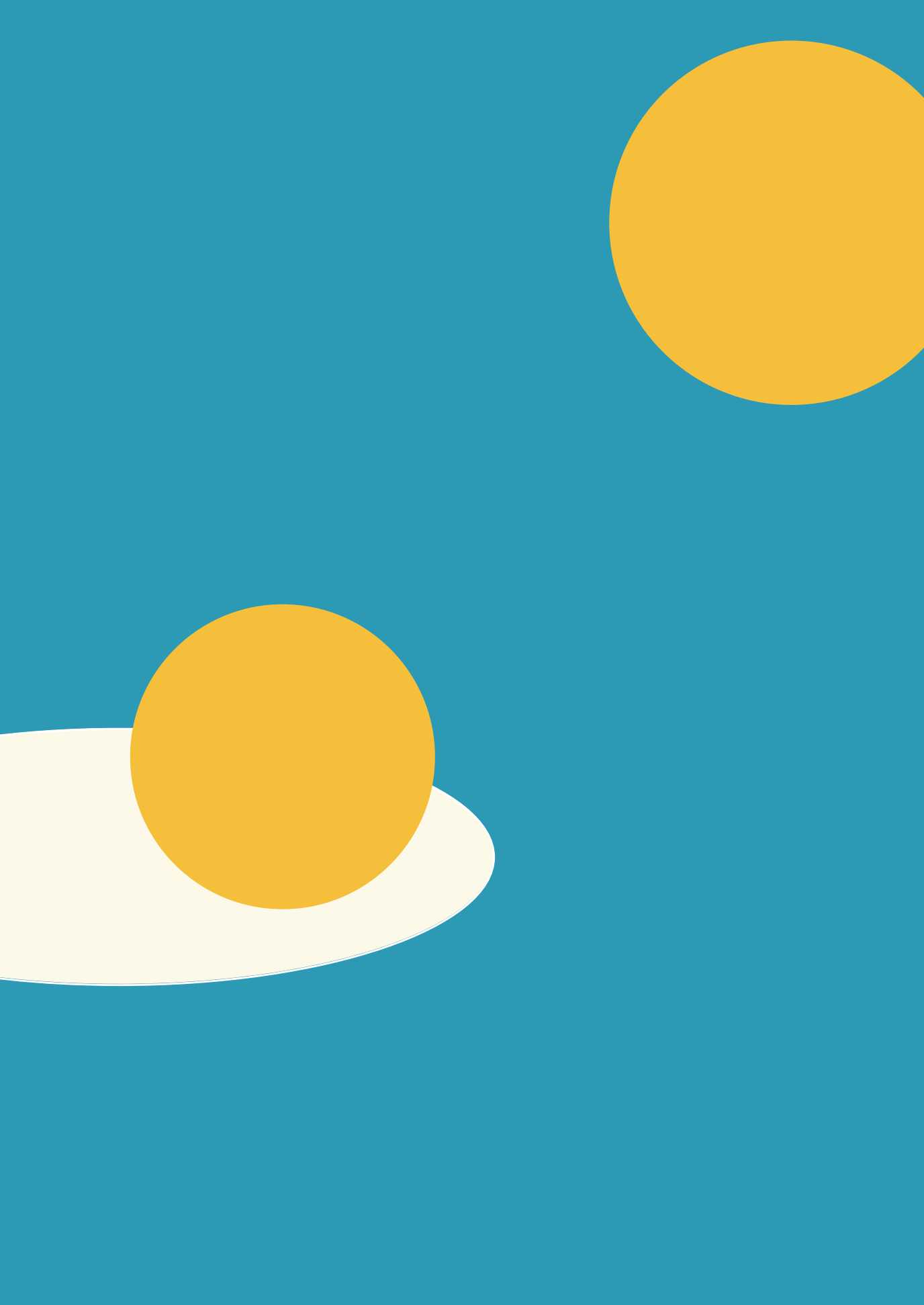


4

# 결과공유 간담회

〈그리고 남은 질문들〉





# 모더레이터 주하나

director & founder

현 PSDI 심리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  
전 뉴욕 퀸즈뮤지엄 아트엑세스 발달장애 이니셔티브팀,  
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문화나눔 장애인 대상 교육담당자,  
미국 미술치료사/수퍼바이저,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사

# 기관 사업 소개

## 주하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가 2015년대 국립현대미술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다음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공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모뎀레이터 자리에 응했다. 이번에 참여하신 기관 대부분 영상, 수어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오신 것 같다.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다. 먼저 돌아가면서 기관 소개 부탁드린다.

##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국제공연제(SPAF)의 접근성 운영을 진행했고, 무장애 사업은 한 달간 진행한 예술제이자 축제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지원하였다. 올해는 전 공연장에 접근성 매니저를 장애 관객 유무와 상관없이 배치했고, 온라인 접근성도 제공했다. 우리의 사전 목표는 장애인 관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다. 모객도 중요하지만 일단 장애 관객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여 본 축제는 사전 준비 없이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기본적인 접근성으로 자막, 이동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공연마다 접근성 준비를 따로 하기도 하였으며, 폐쇄형 음성 해설이나 점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다른 점은 많이 질문하고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관객들이 접근성 요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을 지속하고 이 인터뷰 내용들을 아카이빙했다. 그리고 이후 접근성 매니저와 간담회 및 회의를 다수 진행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접근성 지원을 다르게 하기도 했다. 모든 장애 요소를 고려하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시각장애 관련 기관, 청각장애 기관 리스트 업을 통해 공연별로 기관마다 홍보 방식을 다르게 했다. 공연에 장애인 관객을 별도로 초대하진 않았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연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 결과 총 92명의 장애 관객 중 72명이 유료 관객이었다. 이는 장애 유형 할인 티켓을 통해서 확인한 수치로 모두가 장애인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티켓 판매 수량을 보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생각이 든다.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원해 볼 생각이다. 지원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접근성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 군포문화재단

우리는 10월 6일에 일찍 사업을 진행했다.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장애인복지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들의 작품을 제작 및 전시하였고 정은혜 작가 초청 전시 및 사인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공연 접수를 QR로 진행하여 지류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대신, 지류로는 점자 리플릿을 제작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렸다. 또한, 공연장 좌·우 측에 자막 해설을 사용했고, 시각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싶어서 스토리에 맞춰 모래 예술 애니메이션을 무대 뒤쪽에 띄워 보여주었다. 국악 공연인 만큼 악기들을 로비에 배치해 수어 통역사와 함께 터치 투어도 진행했다. 총 1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진행했는데 전석 매진이었다. 참여도가 좋았다.

사업 종료 후 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내용에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내년에도 무장애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다.

### 인천서구문화재단

배리어프리 콘서트와 배리어프리 전시 2건을 진행했다. 공연은 보컬, 마림바, 바이올린 연주가로 이루어진 시각장애인 예술가 4명과 대중가수가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콘서트였다.

전시는 직접 작품을 만져보고 감각을 통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촉각 중심의 전시로 구성했다. 그와 함께 작품을 음악으로 해석해서 제작한 작품을 전시했다.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를 진행하고자 했다.

우리도 전시 1건과 공연 1건 총 2건을 진행했다. 전시는 <아트브릿, 예술의 발견, 순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용인 벚이 미술관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배리어 프리 전시를 진행하기 위해 그림을 압화로 만들어 만져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어 전시 해설 영상, 오디오 도슨트도 함께 진행했고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서 촉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연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창작 뮤지컬 <장영실과 함께하는 별별 Chat GPT>를 12월에 진행했다. 최대한 현재의 공연장에 맞게 릴렉스드 퍼포먼스로 기획했다. 편안한 공연 감상을 위해 객석 문을 닫지 않고 커튼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했으며, 조명을 밝게 연출했다. 그리고 수어 통역, 한국어 자막을 제공했다. 또한 로비에서 우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만들어진 우산들은 관객들이 직접 객석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장애인 관객들이 공연장에 대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공연은 총 3회 진행되었으며, 2회차 공연에 장애인 기관 두 군데를 섭외해 초청하는 등 장애인 관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관람객들이 즐겁게 관람하신 것 같다.

우리는 전시로만 사업을 진행한 기관이다. 처음부터 사업에 선정되면 무장애를 주제로 한 전시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박물관 유물 속 무늬들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해 12월 초에 개최했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말하기 어렵다. 미술관이 위치한 용인 주변에는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매우 많다.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무장애'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 중이라고 했더니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타이틀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무장애 특별전>이라고 타이틀을 걸었더니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접근성 지원으로는 자막과 음성해설을 진행했고, 별도로 박물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를테면 각 유물의 수어해설이 담긴 QR 제공이라든지, 유물과 관련된 후각, 청각 콘텐츠를 만드는 식으로 진행했다.

### 충주시문화회관

중간에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사업 파악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사업의 경험이 없어서 공연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담당자의 노력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우리도 처음인지라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강남대학교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세미나에서 충격적이었던 건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모르는 분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곳에 청각장애인 배우 2명이 오셨는데 웨어러블 스피커가 공연을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사업 초기 계획했던 웨어러블 스피커를 뺐다. 장애인을 위한 무대로 앞줄 객석을 다 탈거해 객석 수를 줄이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무대를 앞으로 뺐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공연에 중점을 두었기에 대사가 없는 극을 만들었다. 하지만 무언극의 경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집중도를 위해 내레이션을 사용하고 무대장치(패브릭)에 자막 스크리닝을 진행했다.

이 공연이 충주에서 첫 배리어프리 공연이었던 것 같다. 충주가 20만 인구인데 그중 장애 인구가 2만일 정도로 장애 인구의 비율이 높다. 장애인 행사 자체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배리어프리 공연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충주에 있는 기관들에 방문했고 이후 많은 장애인 기관에서 찾아주셨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셔틀버스였다.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단체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그래서 7대를 투입하고 시청 보유 버스 2대를 사용했다. 끝나고 담당 선생님들에게 연락이 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좋아해 주셨다.

## 충북교육도서관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 사업 구상은 미리 되어 있었으나 예산 문제로 시행은 좀 늦었다. 그래서 계획보다 수정된 게 많아서 좀 아쉬웠다. 그래도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대관의 문제로 500명 규모의 홀이 110명 규모의 홀로 변경되어 여러 날로 나눠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같이 모여 대규모로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을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관계자 내빈 약 100명, 장애인 관객 약 70명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우리가 기획했던 것은 충북교육 영화제에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다.

올해가 4회차인 영화제에서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해 한국 화면 해설 작가 협회장님과 같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고, 충북에서 최초로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 상영회에 충북 교육영화제의 교육감님이 오셨는데 내년에도 배리어프리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제작 퀄리티는 높았으나 충북 도내 자체에 장애인 관련, 배리어프리에 관한 가치관이나 장애감수성 자체가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에 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배리어프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우리의 영상을 홍보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없었다. 그래서 충북시각장애인협회에 연락을 드렸는데 회장님께서 회원분들께 직접 홍보와 안내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을 같이 진행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영화와 청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영화가 정반대라는 걸 알았다. 조금의 교집합이라도 있으면 제작하면서 맞추면 되는데 정반대였다. 시각장애인들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같은 다큐멘터리,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호한다면 청각장애인들

은 오히려 액션, 무협 같은 과격한 영화를 선호했다. 교육영화 제라서 그런지 주요 관객층이 시각장애인이었고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다만, 청각장애인분들의 관람이 적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다.

청주에서 최초로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했고 이를 배우는 학생들이 뿌듯해했다. 교육영화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제작한 영화였는데 단체로 와서 같이 관람하고 참여한 학생들이 '배리어프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잘 알게 된 것 같다'라는 평을 남겼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같이 진행했는데 그 결과도 좋았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큰 박수를 치면서 끝낸 사업이었다.

## 공주문예회관

우리는 이번에 배리어프리 공연을 처음 기획하는 거라 지역민들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을 기획했고, 터치투어로 타악기 존을 마련해서 체험을 같이 진행했다. 공연은 2회로 진행했고 사전 섭외로 기관들을 많이 초대했다. 금요일 오전 1회차 관객 초청 공연을 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관람을 위해 토요일 오후 1회차 공연을 진행했다.

대략 총 600명 정도로 관람인원이 집계되었다.

배리어프리 공연이라 좌석을 많이 오픈할 수 없어서 회차당 300석으로 모집했다. 그중 장애인 관람객은 75명 정도였다. 기관 초대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기관 인원 외 관람을 오신 장애인 관객은 파악을 못 했다.

의외로 비장애인 관객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다.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무대로 입장할 때 안내견과 함께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공연의 시작부터 다른 공연임을 인지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예술가분들이 퇴장하실 때도 무대 감독님께서 손을 잡고 이동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다. 공연 이후 이런 공연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은 공연 날짜 선정이었다. 6월에 지원 사업 공모 일정 이후 공연일을 정하게 되었는데 사업 선정이 조금 일찍 정해지면 좋은 날짜를 선정하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고성공룡박물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작은 촉각 전시를 진행했고, 로비에서 전시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진행했다. 전시의 경우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화석이나 공룡 화석들을 최대한 전부 만져볼 수 있는 종류로 준비했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공룡 화석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고성의 경우 주변 지역 포함해서 4천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박물관이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어린이 방문객

이 많았다. 다음에도 사업을 한다면 장애인 대상 홍보 방식과 방문 유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우리는 이번 사업에서 공연, 전시, 교육이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주간으로 운영했고, 공연으로는 오페라 <라보엠> 진행했다. 전시는 한젼마 선생님과 발달장애인 작가님들이 안동을 직접 방문해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을 다니고 영감을 받은 걸로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전시했다. 교육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연을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에 공연이나 전시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장애 인식 개선이나 사업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인력 교육을 많이 진행했다. 내부 직원들 교육을 상세하게 했고 참여 인력 같은 경우에도 제작진과 출연진을 나눠서 교육했다.

출연진에는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고, 제작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음성해설, 수어해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우리 기관보다 먼저 진행한 사업에 관계자들을 모셔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교육을 진행했는데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태도 변화를 느꼈다.

우리는 배리어프리를 시작한 지가 2년 차라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잡은 다음에 장애인 예술가를 무대에 올려야겠다고 생

각했다. 아직 물리적 접근성과 같은 환경이나 접근성에 관한 경험치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장애인분들을 무대로 바로 올린다는 게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주 성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와 소통하고, 협의체 사람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시작되지 않으면 잘 만들어진 배리어프리 공연을 초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공연장 상태에서 배리어프리 공연을 초청하는 것은 공연이 홍보의 역할만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연 전에 9개의 시각, 지적 장애 등의 협의체와 체결을 했다.

그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장애인 관람객이 공연장에 방문하는 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연 1주일 전과 공연 하루 전에 음성 해설, 문자 해설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했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 해설을 보내드렸고, 청각장애인에겐 수어 영상을 배포했다. 이런 노력을 하니 관람객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았다. 공연에 오셔서 수고했다는 피드백을 주셨다. 그런 거버넌스 구축이 진심이라는 걸 협의체들이 느꼈다는 게 좋았다.

공연 날에는 공연 2시간 전에 무대를 오픈해서 시각장애인 단체들과 의상 및 소품을 만져볼 수 있는 터치 투어를 진행했다. 안동시 복지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제작 제안을 주어 현장에서 캠페인을 같이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이

사업의 중요성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중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페라의 경우 비장애인들에게도 어려운 장르다. 그런데 음성 해설, 수어 통역 같은 콘텐츠를 통해 장애 관람객들에게 그들을 위한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 비장애인들은 이러한 콘텐츠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예술 공간과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문화향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2년간의 사업을 통해 안동시 18만 인구에 2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중 문화예술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인구는 더 적다. 그래서 중간에서 협의체가 중요하다. 도서관에 점자를 의뢰할 때 수요 조사를 해보니 점자를 사용하는 인구가 적었다. 그리고 많은 내용보다는 팩트만 싣는 게 좋다고 하셨다. 점자 제작 후 배송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마음을 모으니 진행이 됐다. 그래서 올해 많은 노하우가 생긴 것 같다.

아마 이 사업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진행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공연장에 사업이 알려짐으로써 발전되고 지속되어 실제 현장에서 이를 운영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와서 많은 말을 나눌 시간은 안되지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부안은 인구가 4만 7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다.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되며 초점을 맞춘 부분은 거버넌스였던 것 같다. 갈등이 있어야 거버넌스가 된다. 부안군의 콘텐츠는 록 페스티벌이었는데 이를 두고 관공서에서는 7시간짜리 록 페스티벌은 불가능하다고 꺼렸다. 이유는 민원의 우려 때문이었다. 현실은 그랬다. 그래도 군청 앞마당을 내어주어 사용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 장소는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배리어프리 존이기 때문이다. 체육관이 장소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그곳은 장애인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행사 진행 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국 군청 앞마당에서 하게 되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동 수단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알아보니 개별적으로는 대부분 장애인 콜택시 등 자체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더라. 그렇게 많이 오셨다.

또 한편으로는 구내 소방서가 하난데 12명이 지원을 왔다. 소방차 외 구급차, 경찰 등 많은 지원이 있었다. 교통경찰 6명, 방범대 30명가량이 왔다. 지역 봉사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행사에 대해 숙지를 시켜야 하니 이야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장애인분들에게 보통 사람, 일반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주지시켰다. 그리고 휠체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교육했다.

그 공연장에 1,300명 정도가 왔다. 부안의 인구는 4만 7천 명 밖에 되지 않으니 많은 인원이 방문하신 거다. 단체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안 해본 걸 하니까 신기해서 많이 와주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점자 인쇄물, 수어통역, 우퍼 조끼 등을 진행했다. 방문하신 1,300명 중 20대에서 40대가 80%였다. 청년이 없다고 하는데 그날 부안의 모든 청년이 다 온 것 같다. 50대 이상만 10~20% 정도였던 것 같다. 이렇게 성과를 내다보니 끝나고 나서 다들 좋아했다. 전주 KBS에서 심층 보도로 5분 정도 이 행사를 다뤘다. 새로운 것이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점이 었다.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터치투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 단체 분들이 오셔서 전시도 각자 해주시고 네트워크가 있으니 홍보도 잘 해주셨다. 첫 사업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군청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같이 뭔가를 하면 기존에 장애인들이 동원되었던 행사에서 벗어나 직접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있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 그래서 올해도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비슷할 것 같다. 영화제나 록 페스티벌이나 이런 형식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짜서 올해 재밌게 해보려고 한다.

예산도 재단에서 많이 지원해 줬다. 화장실, 샤워실, 배수구 등 준비할 게 꽤 많았다. 안전에 관한 것도 군청과 협의해서 했다. 그래서 잘 치러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라운드테이블

**ROUND  
TABLE**

**주하나** | 11개 기관의 이야기를 소개와 같이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느낀 것은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성 사업에 대해 최일선에 계신 분이라는 거다. 지역이나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단체들이 참여하기 힘든 조건에서 그 상황을 뚫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 주셨던 내용 중에 코멘트를 드리자면, 좀 전에 부안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경험이 이후 사업들에 도움을 주는 상황처럼 첫 사업에서의 피드백과 개선해가는 모습을 통해 이런 사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겠다.

## Q1.

**부안군의 록 페스티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연하신 분들 중 장애 예술인 분이 있었는가?**

**부안군문화재단** | 6개의 가수가 참여했다. 그중 장애인 밴드가 있었는데 이슈가 있었다. 무장애 행사니까 장애인 단체가 공연을 해야 할까? 등 장애 인식을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었다. 논의 끝에 대중을 위한 공연이라면 장애인 단체의 공연 여부가 중요한가? 라는 결론을 내렸다.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번 록 페스티벌에선 장애인 밴드가 공연을 하진 않았다. 내년에도 공연을 한다고 하면 아티스트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이런 걸 떠나서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로서 공연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영화나

공연이나 어떤 장르이건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무대를 함께 즐기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Q2.

주하나 | 인천 서부문화재단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인천서부문화재단 | 우리도 관내에 있는 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한 기관에서만 오시고 나머지는 비장애인 관객분들이셨다. 그게 좀 아쉬웠다. 또 공연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녁이라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된다면 날짜나 시간 조절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기관들도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 Q3.

주하나 | 군포의 경우 QR로 접수받으셨다고 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QR로 받으신 건지, 기관이랑 협력해서 초대하신 건지 궁금하다.

군포문화재단 | 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방문을 해주셨다. 이외

에 배너 자체에 QR을 기입했더니 장애인 보호자와 주변 분들의 소개로 오시는 경우도 있었다.

**주하나** | 점점 IoT 같은 디지털 관련 매체, 미디어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쉽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더 많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 토글이 있어서 점자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 워낙 디지털화가 빠르고 잘되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수어라든지 점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로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다. 그분들을 모실 때 기관대 기관으로 하면 담당자분들이 취합하시겠지만, 공공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참여 접수를 받을 수 있다면 가족, 친구분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기관을 통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일반으로 확장됨으로써 소식을 접하기도 쉬워서 디지털 방식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 접근성이 더 쉬우니까 그런 방식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 Q4.

**주하나**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우 전체 관객이 장애인, 비장애인 관객으로 섞여 있다고 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가?

**예술경영지원센터** | 1% 정도였다.

**주하나** | 아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

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결국은 1%에서 10%로 가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예술경영지원센터** | 우리가 조사자료 등을 찾아봤을 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5% 정도 장애인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억지로 수치를 올리기보다는 5%를 목표로 하고 있다.

## Q5.

**주하나** | 지금 보면 각 재단과 사업하셨던 내용들이 진행하면서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거다.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안 좋은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나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진행이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다. 혹시 모객 과정이나 홍보 차원, 장애 유형별 접근하는 부분이나 이런 사업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달라.

**충주시문화회관** |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충주는 기관이 많아 장애인분들만 6~70명이 오셨다. 원래 공연은 오후였는데 오전 공연 문의가 많아 급하게 오전 공연으로 바꿨다. 2회 공연을 했는데 시각, 청각장애,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분들이 오셨는데 휠체어석 확보가 조금 힘들었다. 한 공연 당 휠체어가 15대 수용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면 앉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객석 사이에 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휠체어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관람이 어려웠다. 그렇다고 오신다는 분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고충이 많았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 Q6.

**주하나 | 코멘트 주실 기관이 있나? 지금 모두 예술극장 같은 경우 꽤 많은 좌석을 확보한 것으로 한다. 가변형 공연장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사업을 구성할 때 그 사업을 어디서 실행하는지, 극장이라면 실험식 극장인지, 일반 극장인지도 등의 장소도 중요하다. 공연장 안전 재해 규칙상 객석 통로에 배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우리도 관련 고민이 많았고, 제작년은 그 문제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있다. 안동 극장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내려가는 통로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목수를 불러 여러 방법을 고민했다. 휠체어가 돌아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억지로 공간을 만들면 안전 조항에 위반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휠체어 좌석을 한정적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연장에 휠체어 좌석이 몇 석인지 사전 공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휠체어 뒷열에 있는 사람은 공연을 볼 수 없다면 그건 무장애가 아니다. 요즘은 리프트를 다 설치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지어진 공연장을 변경하기에는 큰 예산이 든다. 모두예술극장의 경우 실험극장으로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극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만 일반공연장은 재해 대책

에 맞게 구비하려면 극장을 다 뜯어내야 한다. 그건 무리가 있다. 나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려면 참여자가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 등 구체적인 것들이 선 세팅이 되어야 한다. 나도 예전에 좌석 문제로 너무 속상해서 고민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휠체어 옮겨주는 사람 따로, 휠체어 관객을 좌석으로 이동시켜주는 사람 따로 이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와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셨을 때 데시벨을 여쭙보면 '비장애인과 똑같이 해달라'라고 요구하더라. 너무 과한 데시벨도 불편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어떤 분은 청각장애인임을 표시 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같은 대우를 원한다고 하셨다. 장애 유형을 보려면 많이 부딪히고 겪어볼 수밖에 없다. 많이 겪어보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자료를 받으러 오시기 전이나 꺼릴 때 무심한 척하고 드리기도 했다.

사업하기 전에 모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한 다음에 객석을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른 일화를 말씀드리면 수어와 자막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힘들었다. 우리는 수어 해설 위치를 위해 객석을 D열부터 시작되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중간 열은 농인들에게 우선권을 줬다. 그랬더니 비장애인 관객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그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그랬더니 몰랐다고 하시며 이해해 주셨다. 이러한 경험들로 누군가에게 장애 인식, 배리어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만족한다.

**충주시문화회관** | 우리는 처음이라서 제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 그걸 주의 깊게 해봐야겠다.

**예술경영지원센터** | 우리는 무장애로 기획했던 게 아니라 불특정 관객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무장애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장애 관객, 비장애 관객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작년에 휠체어석을 확보하기 위해 극장을 뜯었다. 하지만 큰 전동 휠체어는 회전각이 나오지 않아 공사한 것들이 유용하게 쓰이진 못했다. 그때 관객분들한테 여쭙보니 휠체어를 수동으로 옮겨 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허락을 해주시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이동해 드렸다. 탈거의 경우도 비장애인들에게는 시야 방해가 될 수 있어서, 탈거한 좌석들의 뒤쪽을 다 막고 스텝 자리 등으로 변경하고, 그 근처는 접이식 의자, 이동 가능한 좌석을 놔서 휠체어 관객이 오지 않을 경우 일반 관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이동 가능 좌석을 구매한 관객도 컴플레인 없었다.

## Q7.

**주하나** | 이걸 위해 현재 있는 기관들이 공사를 하거나 하는 방식의 개선까지 가기는 오래 걸린다. 그래서 공간에 맞게 몇 좌석이 가능한지 좌석 제한이나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나눠주신 것에서 방법이 있을 거 같다. 아까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충주시문화회관** | 프로그램 북을 일반 사이즈, 크고 작은 사이즈 3가지로 제작했는데 노약자들이 노안 때문에 큰 안내서를 선호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자는 간략 버전으로 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점자를 아는 분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득 점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지원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다. 어린 세대일수록 점자가 유용하지 않을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했다.

## Q8.

**주하나** | 많은 기관에서 점자 관련, 수어 영상 등 정보 접근성에 관련해서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북교육도서관** | 우리는 점자 사업을 하고 있다. 무장애 문화 활성화 자체가 모객이 적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듯 점자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작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 비율이 5~10%라는 것은 알지만 점자 인쇄물을 많이 제작했다. 큰 글자와 점자를 혼용해서 묵점자 혼용을 만들었는데 인식개선을 위해 사용했다. 아이들에게 점자에 대해 교육하기도 하고 다르게 활용해서 인식개선으로 활용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지방은 점자 인쇄가 없어서 외주를 줘

야 한다. 내부적으로 왜 짝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배리어프리라고 답했다.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리어프리임을 인식이 되게 하는 거다. 이걸 과한 게 아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동 인식이 되는데 왜 적게 짝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첫 회에 점자 짝을 때 하얀 종이에 점자만 짝혀있었다. 그걸 정말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였다. 그걸 처음 보고 너무 놀랐다. 홍보를 생각하면 비장애인이 봐도 홍보물인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급하게 테두리에 무언가를 붙이고 했다.

올해는 일반 팸플릿에 점자를 입혔다. 그런데 출연진 어머니가 오셔서 팸플릿 속 아이 얼굴에 구멍이 났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에는 프린팅, 점자로 페이지를 교차하면서 짝을 생각한다. 사실은 그분들은 보지 못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 나는 점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주시문화회관** | 우리도 이번에 하얀색에 점자만 짝었다. 그리고 테이블에 큰 글씨, 점자, 기본 팸플릿을 나열해두었는데, 의외로 비장애인들이 점자 리플릿을 많이 관찰하셨다. 그런데 점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여쭙보고 싶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우리도 인식개선 교육을 했었다. 건대 사회복지학과 장애 담당하시는 교수님을 초대하고 그 학과 학생들을 20명을 섭외해서 모니터링 및 체험을 진행했다. 터치

투어, 우퍼 조끼 등을 체험했는데 공연 직전에 학생들이 수신호가 뭐냐고 물어봤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수신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정말 몰랐다. 그게 이번 사업에서 가장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

## Q9.

**주하나 |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발생한다.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부안군문화회관 |** 부안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여성 방범대가 15명 정도 오셨다. 그중 5명이 장애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봤던 분들이었다. 행사에서 이분들이 장애인과의 소통을 거의 다 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일반적인 페스티벌의 경우 사람만 세워놔도 질서가 잡히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장애인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애인 분과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중간에서 거의 다 일을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배리어프리는 좀 다른 것 같다. 수가 많을 필요도 없이 아는 사람 몇 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장애인 야학 교사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중간다리 역할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심어놔야 한다. 요즘은 그걸 접근성 매니저라고 하는 것 같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제가 오늘 한 분 더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오페라 <라보엠> 음성 해설 작가를 하셨던 분이다. 공공기관에 아나운서로 계시다 작가로 전향하셨다. 이분과 함께

가려는 이유는 고생을 많이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 평가회를 위해 왔는데 우리는 무장애를 하면서 작년에 이 사업에 자체 예산을 만들었다. 올해는 음성 해설기를 따로 구매하려고 한다. 한번 빌릴 때마다 190~200만 원이 드는데 일 년에 4번 정도 공연하면 구매 금액이다. 올해도 그 정도의 공연을 예정하고 있어서 구매하려고 한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_음성해설가 |** 안 그래도 질문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 <라보엠>이란 작품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비장애인 중에도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설이 없어도 좋아하시면서 본다.

나는 연기자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몰래 해설하고 녹음해서 눈을 감고 들어본다. 그랬을 때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한 해설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지 시각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또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해설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되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올 때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래를 듣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한 명이 노래를 부를 땐 괜찮은데 네 명이 노래를 부를 땐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결국 합의한 건 전체적인 느낌은 해석해 주되, 중간에 감정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감정적인 걸 설명할 땐 여자 목소리를 냈다가 남자 목소리를 내는 음성변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일 고민이 됐던 것은 배경 설명을 할 때 예를 들

어 뒤에 자작나무가 나오면 이 사람이 자작나무를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은 자작나무가 하얀 나무라는 걸 알지만 애초에 색을 본 적이 없으면 그걸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흰빛의 가지가 앙상한 나무가 서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든다. 하면 할수록 의문이 된다.

**주하나 |** 질문이 디테일하시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_음성해설가 |** 일단 말으니깐 책임감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배리어프리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즐길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충주시문화회관 |** 사실 공연을 못 보고 음성 해설만 들으며 일을 했는데, 이분이 배우하고 연출하시는 분이래 이걸 구분해서 해석을 해주셨다. 일반적인 설명은 딱딱하게 연기는 감정을 실어서 하셔서 좋았다.

우리가 섭외한 팀은 사실 사업이 늦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거절하셨다. 그리고 우리 작품이 어렵다고 했다. 왜냐하면 대사가 없기도 하고 장애인 관객이 한번 왔을 때 많은 장르를 접했으면 해서 국악, 정각, 한국무용, 택견, 태권도, 벨리댄스를 섞어서 하나의 극으로 만들었다. 무용극 같은 거라 해설이 어렵다고 하셨다. 그런데 프로는 프로였다. 예를 들어 움직임을 설명할 때 손을 뻗으면, 손을 어떻게 뻗는다 이 정도로 설명해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섭외한 분이 정말 디테일하게 예를 들

어 택견을 얘기할 때 택견 동작들을 설명하기 위해 택견을 공부하시고 본인의 정보의 한계가 있으니 출연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진행하셨다. 택견 동작에서 어떤 걸 포커스를 두는지 이런 거를 다 인터뷰해서 해주셨다.

**주하나** | 이 지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이 이걸 알까?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는데, 그것과 같이 본 단어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해설을 하실 때처럼 자작나무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자작나무'라는 단어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들을 접목해서 녹여내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택견의 경우도 택견이란 게 있고 그게 어떤 것이고 이런 정보들을 접목해서 설명해주는 게 좋다. 어휘가 늘어가는 게 중요하다. 아까 감정선이나 시각적인 것들을 언어나 음성 정보로 녹여내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전문가와 차이는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쌓아가시는 것도 있을 거다.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대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 설명을 통해 접근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의 배리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인식 속에 갇혀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여하는 당사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저도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어들을 안 넣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대한 당사자들이나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녹여내는 것도 중요하다.

**충북교육도서관** | 교육도서관과 함께한 한국음성해설작가협회다. 사실 오페라를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 오페라를 일반 무대 그대로 하신 건지. 일반적인 오페라 형태였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 저도 2010년도에 어둠 속에 오페라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극을 다시 썼다. 그래서 오페라를 해체해버렸다. 사실 시각 장애인들은 무대를 볼 필요가 없으니 무대를 다 없애 버렸다. 샐로 된 막을 치고 성악가 한 사람에 성우 한 사람을 붙여서 한 사람이 노래하면 한 사람이 대사를 읽어주는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배리어프리가 되더라.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극장이 암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상구 표시도 있고 좌석 표시도 있어서 암전이 되지 않았다. 결국 비시각장애인에겐 다 보였긴 했지만 무대가 끝나고 나서의 피드백들은 좋았다.

또 한 번은 정통 오페라의 해석을 맡았는데 정말 어려웠다. 오페라는 분명 노래를 들어야 하는데 한국 버전도 아니고 외국어였고 매번 노래를 해석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다 노래 전에는 설명을 하고 노래하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걸 다 하셨다고 하니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

화면 해설 같은 경우의 제1원칙은 시각장애인이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게 하는 것이다. 떠올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된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원칙이고 두 번째는 맥락을 이해시키는 거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너무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상상 가능한가? 서사를 잘 전달하는가? 하는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하면 된다.

# 그리고 남은 질문들

**Q&A**

# Q1.

## 기획 단계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은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무장애 특별전 및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원했다. 지금까지 박물관이 진행해 왔던 장애인 대상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전시의 영역에서 ‘무장애’를 지향하려는 시도였다.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혹은 그와 비슷한 정도로 편안하게 모두가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박물관 전시에서 비슷한 시도를 했던 선례가 거의 없었기에, 결국 수많은 방식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기획 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다. 박물관 전시에는 공연장이나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와 구분되는 여러 성격이 있다. 이를 유지하면서 ‘무장애’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고성공룡박물관 |** 우선 방향성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무장애’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과 전시의 구성 등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찾아보고 공룡박물관의 콘텐츠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았다. 무장애를 지향했지만 주 관람층인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공주문예회관** | 배리어프리 공연에 대한 자료들은 있었지만, 경험을 통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배리어프리 공연에서 어떤 부분까지 접근성을 높여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공주시민들에게 적절한 접근성 향상 방안이 필요했고 공연의 목표 설정을 배리어프리 공연 경험 및 시민 경험 축적에 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관람이 가능하도록 기획하려고 했다. 사전에 기관 설문을 통해 공연 일자와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반 관객 역시 쉽게 관람이 가능한 시간을 선정하였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일반공연보다 더 많다 보니 전문가의 의견이나 접근성 매니저의 도움이 있었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문화재단** | 담당자이지만 배리어프리나 무장애,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기 전에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본 사업을 시작했던 첫해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담당자들에게 배리어프리 관련한 교육이 선행된다면 좋을 것 같다.

**군포문화재단** | 장애인 관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후화된 공연장 특성상 휠체어 동선 및 좌석 변경에 한계가 있어 아쉬웠다.

**부안군문화재단** | 2023년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 '진행' 면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 장

애+문화예술 영역이기에 공모 선정을 위한 기획 단계를 넘어서서 반드시 전문가와의 협업 구조 또는 자문 구조가 필요하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문화예술 사업은 인력 풀에 대한 콘택트 포인트가 쉽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축제/프로그램은 장애 및 비장애 모두를 고민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접근성 매니저)/수행단체가 필요하다.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되겠지만 현재는 초기 단계라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나 대인의 연락처 공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선정된 수행단체가 사업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3번 정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천서구문화재단** | 2023년 처음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기획하면서 배리어프리 공연과 전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배리어프리', '무장애',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이 많았으며, 일반 공연 및 전시 운영 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모 선정이 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배리어프리 이해도 교육을 기획 전 단계에서 진행해 준다면,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충북교육도서관** | 평소 시각장애인 서비스를 담당하며 화면

해설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던 터라 큰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예산상의 문제로 생각만 하고 실행하기 힘들었던 분야를 마음껏 상상하며 기획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

다만 공고 당시 공고를 마감 3일 전에 확인했다. 심지어 관장님이 다음날부터 출장이라 공고만 보고 서류 준비 없이 바로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공모가 있는데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라고 하셔서 진행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앞뒤 생각 없이 과감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오히려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다.

또한 충북 도내 배리어 프리 콘텐츠 이해를 위한 교육과 제작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다. 사업을 진행하며 관계자들의 배리어프리(무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협조의 어려움이 많았고 영화 제작 시에도 충북 도내 인력 및 관련 시설 부족으로 타 지역과 업무 분배할 수 밖에 없었다.

**충주시문화회관 |**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가 꽤 크다는 점과 실제로 장애인 배우, 장애인 학교 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비장애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기술이나 기구들이 장애인 입장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몰입감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 Q2.

**'배리어프리', '무장애', '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주시문화회관** | 단어 자체의 이해도보다 단어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Q3.

**사업 예산과 기간은 적절했나요?**

**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 예산은 적절했으나 용역에 대한 제한(권고사항)의 완화가 있다면 예산을 더욱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 기간의 경우 사업 기간이 조금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결과 환류를 위한 간담회, 합평회, 워크숍 시 주최기관(예경), 참여 공연단체, 참여 접근성 인력 모두 배리어 프리 작업을 위해서는 사전 단계(기획 단계)부터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기획 단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참여 인력을 꾸리고 함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충주시문화회관** |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공연이나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선 예산이나 기간이 더 탄력적이어야 하므로 연내 결산을 위해서라면 사업 공모 기간이 3월 정도로 당겨져야 한다.

## Q4.

작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과 어떻게 협업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 접근성 경험이 있는 공연 단체, 온라인 리서치(이음 매거진 등), 기존에 협업하던 접근성 매니저를 통해 참여 인력을 꾸렸다. 올해는, 한 명의 접근성 매니저 대신 팀(용역)을 섭외하여 접근성 행사 진행 인력을 꾸렸고, 행사의 진행 단계와 결과 환류 단계에 워크숍을 진행하여 접근성 매니저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어려움은 많은 사업 참여기관이 언급했듯, 접근성 전문 인력을 리서치 하는 것이 어려웠다.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 인력 확장을 하려 노력했지만, 새로운 인력을 만나고 새 의견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음의 아카데미 진행 시 동의 후 수료생들의 풀이라도 공유를 받을 수 있다면 전문 인력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충주시문화회관** | 배리어프리 공연을 처음 제작한 기관이나 단체일수록 음성/수어 해설 등 스태프 섭외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장문원에서 해당 스태프 리스트를 제작, 배포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

## Q5.

지원 사업 콘텐츠에 장애 유형별 접근성을 어떻게 녹여내고자 하셨나요? 그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충주시문화회관** | 공연의 경우 크게 시각, 청각, 발달로 나누고 특별한 장치 없이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출연진의 대사 자체를 없애는 등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Q6.

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주문예회관** | 배리어프리 접근성 매니저의 활동이나 중간에서 해결점을 찾아줄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처음으로 배리어프리 공연을 진행하니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공연에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지원해야 하는지와 전문 인력의 섭외 등이었다. 기획 단계에서도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접근성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광명문화재단** | 제일 필요한 건, 아무래도 접근성 매니저 풀이 아닐까 생각한다. 담당자 개별적으로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공연 단체나 전시 단체와 함께 찾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배리어프리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 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안군문화재단** | 부안문화재단은 사업이 장애인 단체-군청-재단-예술감독 체제로 운영되었다. 페스티벌을 만드는 관계자분들에게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행하였다. 장애의 개념에서부터 현장 운영 교육까지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 교육을 필수적으로 넣어주셨으면 한다.

**인천서구문화재단** | 처음 배리어프리 사업을 접해보면서 음성 해설자, 접근성 매니저 등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웠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찾기가 어려웠다. 음성해설자나 접근성 매니저 등 인력에 대한 리스트 등을 지원해 주신다면 조금 더 원활한 사업 운영이 될 것 같다.

**충북교육도서관** | 본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기관들과의 간담회와 결과공유회에서 느낀 점은, 특정 서비스나 분야의 '검증된 기관(인력)'을 요구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검증받거나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받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이번 사업처럼 전국 단위의 프로젝트인 경우 '각 지역의 인력 풀'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역 내 원하는(혹은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면, 그러한 체계

를 구축하는 것까지가 본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내 인력 및 시설이 열악하여 힘들었지만, 추후 지속적 사업 진행을 고려하여 인력을 발굴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였다. 수익성이나 효율성 판단이 사업의 평가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사업을 계기로 전문 인력 풀을 만드는 역할까지도 맡아야 한다고 본다. 사업의 전문성은 곧 담당자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주제별 이론교육이나 선진기관 방문 및 견학, 무장애 콘텐츠 관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주시문화회관** |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기술 및 스태프 리스트가 필요한 것 같다.

## Q7.

**향후 지원 사업 참여기관에 어떤 교육이 지원되면 좋을까요?**

**경기도박물관** | '무장애'와 관련해서는 모든 기관이 아직 걸음마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취지와 목표, 진행 방향에서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실천 방향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에 지원한 기관 중 일부는 '무장애'의 취지에 대해 막연히 공감만 하고 구체적인 방향성

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 담당자는 기관 내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단계부터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고성공룡박물관** | 대면 교육도 좋은 방법이지만, 1번의 교육으로는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사업 진행 초기에 사업이 잘되었던 곳의 매뉴얼을 제공하여 각 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관들이 방향성을 잡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광명문화재단** | 향후 지원 사업 참여기관에는 제일 필요한 건 담당자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각 기관이나 소속 단체 직원들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교육이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다.

**군포문화재단** | 참여기관 워크숍 강사님들과 더불어 결과공유 간담회에서 참여기관들의 후기 및 추진 과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무장애 문화 향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업기획 전 워크숍이나 교육 등의 일정을 올해보다 조금 일찍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인천서구문화회관** | 참여기관에 사전 교육으로 음성 해설의

방법이나 접근성에 대한 방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면 좋겠다.

**충주시문화회관**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 Q8.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예술경영지원센터** | 단기 관객 개발과 중/장기 관객 개발을 나누어 진행하고, 중/장기 관객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결과 환류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

- 장애 당사자의 공연 전 모니터링을 통한 공연 수정/보완
- 장애 예술 전문가들의 공연 모니터링 및 작품 비평
- 장애 관객 인터뷰(발달장애인 포함)
- 사후 배리어 프리 공연 제작 단체 및 비평가 합평회
- 사후 접근성 전문가 및 장애 관객(예술인, 인플루언서) 네트워킹 및 워크숍
- 아카이빙 영상/아티클 제작(장애 비평 및 모니터링 결과, 장애 관객 및 배리어 프리 공연 창/제작진의 인터뷰를 모아 제작)

**충주시문화회관** | 현재 장애인 예매율 등 데이터를 취합(관심도 증가)하고 각 장애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의견을 청취했다.

## Q9.

###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피드백은 각각 어땠나요?

**충북교육도서관** | 시각장애인 관람객 중 시각협회를 통한 단체 신청자가 80% 이상이어서 관계자들의 관심 및 호응, 회원들 독려가 중요했다. 또한 평일 낮 시간이 단체 관객 모집에 용이한 점을 확인했다. 반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협회와 관계자의 낮은 호응도가 관람객 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화 장르에 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비장애인 관객의 경우 교육 영화제인 만큼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하였으며 긍정적인 반응과 필요성에 대한 피드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영화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배리어프리를 영화 제작을 통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피드백을 남겼다.

피드백을 취합 후 분석한 결과 장애 유형별 선호하는 영화 장르가 달라 배리어프리 영화 관객 개발 시 장애유형별 선호 주제에 따라 관객 개발 층의 분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고전, 다큐, 독립영화 등 서정적인 내용의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하는 것에 반하여 청각장애인은 화면을 배제하고도 소리만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액션, 스릴러 장르를 선호하였다.

**충주시문화회관** | 공연 자체의 완성도와 재미에 크게 만족했고 배리어프리 공연을 더 많이,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피드백을 들었다.

## Q10.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경기도박물관** |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전시는 기획 단계부터 개막까지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업의 경우 지원이 결정된 시점에 담당 직원 채용을 시작했음에도, 채용 완료 시점부터 개막까지 4개월의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되도록 연중 이른 시점에 사업이 시작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밖에도 타 기관들과 충분한 교류를 갖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른 기관과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 행사나 공연, 전시의 경우라면 개막 일자 등을 공유해서 타 기관에 모니터링을 함께 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고성공룡박물관** | 무장애 관련해 처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다. 시간이 많았다면 관내의 장애인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다. 또한 이번에

는 전시나 프로그램을 촉각 체험 중심으로 구성하였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체험 기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공주문예회관** | 성공적인 배리어프리 공연을 위해서 사전 준비와 자문을 진행하였지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언어 안내를 진행하면 어떨을까? 그리고 날씨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터치 투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연 가능 일정이 11월이라 외부에서 진행하는 터치 투어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천서구문화재단** | 장애인 관객을 많이 모시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 운영 기간과 시간 등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명문화재단** | 기존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시설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다. 또한, 모객에서 한계를 느꼈다. 다음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타 지역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충북교육도서관** |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의 취지를 살려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관객이 함께하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대관시설 부족으로 관객층을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본 영화를 중간에 수정하는 경우가 발

생하여 작가가 화면 해설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 시각장애인 감수를 받지 못한 채 녹음을 진행하였다. 국제영화제의 경우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될 영화는 퀄리티 저하의 문제로 수정 금지 조항을 달기도 한다. 또한 충북지역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인력 및 장비,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힘들었으나, 경험 있는 연출가의 도움으로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충주시문화회관** | 실질적인 사업 수행 기간이 짧고, 예산 부족으로 연습과 테스트 기간 부족했다.

## Q11.

**다음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나 현 사업에서 보완/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송출 시 좌우 측 모니터 활용보다 무대 백그라운드를 디자인·활용하여 진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배리어프리 공연 특성상 하우스 어셔에 대해 보다 세밀한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공연에 찾아온 장애인, 비장애인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안군문화재단** | 부안에서 장애인이 중심이 된 행사는 최초라고 생각한다. 1차 연도에 아쉬운 점은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였고 터치 투어와 같은 장애 유형별로 조금 더 공연에

술을 즐길 수 있는 장치를 더 넣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예술 장르에 있어서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경험하지 못한 예술 장르를 주간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고자 한다. 2024년 잘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인천서구문화재단** | 다음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장애 유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고 그 부분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공연 및 전시 운영뿐만 아니라 장애 기관과 협업하여 간단한 부스 운영,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고자 한다.

**충북교육도서관** | 이번에는 충북교육영화제 출품작의 일부를 협조받아 '배리어프리 영화 특별 상영회'로 진행하였으나 다음에는 '충북 배리어프리 영화제'로 발전시켜 기획 단계에서부터 홍보, 실행 등에서 규모를 키우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충주시문화회관** |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공연, 공연장 일정 등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자 한다. 사업 개시 전 (5월 이전) 장애 관련 단체 의견 취합하고 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대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 23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4. 3.

발행인 김형희

발행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기획/편집 신상미, 정지윤

운영/편집 유쾌한

디자인 유쾌한

\* 본 자료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 시  
저작자와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